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21호 【루계 제24999호】 주체104(2015)년 8월 9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우간다공화국 대통령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전문을 보내여온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과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일에 즈음하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숭고한 경의와 굳은 련대성이 담긴 따뜻한 전문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들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시였다.

본사기자

조선해방 70돐,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인도네시아준비위원회 결성식이 7월 29일 수카르노교육재단에서 진행되였다.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수카르노교육재단,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 인사들과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카르노교육재단창립위원회 위원장 라흐마와띠 수카르노뿌뜨리가, 서기장으로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리스띠얀또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채택모임과 업적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해방 70돐 및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에짚트전국준비위원회가 1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에짚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인 에짚트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야흐야 자카리야 헤이롤라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8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업적토론회, 련대성집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전설적영웅 조선해방 70돐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조선의 선군정치경험》이라는 주제의 우간다전국토론회가 7월 31일 캄팔라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토론회장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토론회에는 우간다대통령상급고문인 우간다전국항쟁운동집행위원회 성원 끼룬다 끼베진자,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루가라마,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 미얌발라 로렌스, 마케레레종합대학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소 위원장 마씨코 안드루와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참가하였다.

우간다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끼룬다 끼베진자, 다니엘 루가라마를 비롯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는 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새기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선군의 원리를 밝히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간고한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고 칭송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선군사상은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에 그대로 구현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대미문의 선군정치로 우리 나라를 정치군사강국, 핵강국으로,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 *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로므니아에서는 업적토론회가, 체스꼬, 도이췰란드, 말레이시아에서는 좌담회가 7월 28일과 8월 1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조선해방 70돐경축 로므니아전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은 망국노의 설음에 모대기던 조선인민에게 민족재생의 기쁨과 행복한 삶을 안겨주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일찌기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나라를 해방할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투쟁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께서는 피어린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오늘은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의 지도부와 전체 당원들은 조국해방 70돐을 맞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제1비서동지의 령도따라 영웅적인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경축 체스꼬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조선에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신 걸출한 수령이시다.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조선해방 70돐,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나라를 해방하심으로써 조선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물리치며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고 언급하였다.

말레이시아 흔빌개발회사 사장은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을 번영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오신 인민의 수령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을 자랑스럽게 떨친 장한 딸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 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 쟁취, 남조선팀을 2:0으로 타승

온 나라 천만군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나라 선수들이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2013년 동아시아컵녀자축구경기대회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경기에서 혁혁한 승리를 이룩한 우리의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은 지난 1일 중국의 무한에서 시작된 이번 경기대회에서 일본팀을 4:2로, 중국팀을 3:2로 누르고 8일 남조선팀과의 마지막경기에 나섰다.

량팀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의 우승을 위해 맹활약을 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높은 축구기술, 완강한 투지와 비상한 단결력으로 시종 드센 공격을 들이댐으로써 상대팀을 수세에 몰아넣고 우리 식의 경기전법인 빨찌산식공격전법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은 경기시작부터 승리의 신심에 넘쳐 자신만만하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남조선팀의 물문을 련속 위협하였다.

전반전 22분경 윤송미선수가 남조선팀의 무례한 반칙으로 얻은 벌차기공을 통쾌한 득점에로 이어놓았다.

남조선팀은 측면돌파를 많이 시도하면서 득점을 해보려고 부단히 시도하였으나 우리 팀의 철통같은 방어진을 뚫지 못하였다.

전반전은 1:0으로 우리 팀이 앞선 가운데 끝났다.

후반전은 더욱 치렬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기세충천하여 공격속도를 계속 높여나갔다.

후반전에서도 째인 종련락과 먼거리차넣기 등 다양한 전술로 공격속도를 부단히 변화시켜 상대팀 방어진에 혼란을 조성하면서 남조선팀을 계속 압박하였다.

경기시간 52분경 주장 라은심선수가 중간지대에서 우리 선수가 넘겨준 공을 받아 상대팀 방어수들을 빼돌리고 차넣은 공이 또다시 득점되였다.

우리 팀의 강한 공격과 방어앞에 남조선팀은 완전히 피동에 빠졌다.

결국 경기에서는 우리 나라 팀이 남조선팀을 2:0으로 압승하고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경기마감을 알리자 우리 선수들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남조선팀을 타승한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자들과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내였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아시아의 축구강팀, 축구강자로 자라난 자기들의 강의한 정신력과 높은 기술수준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당이 안겨준 불굴의 투지와 주체적인 전법으로 마지막까지 이악하게 싸워 우승함으로써 당과 조국,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한 녀자축구선수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주시였다.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역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최상최대의 사랑과 믿음이 어린 축하전문을 받아안은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경기의 나날 꿈결에도 그리며 뵙고싶던 자애로운 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러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조국의 장한 딸, 우리의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이 이번에 또다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승전소식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다그치고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기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다시한번 떨친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에게 조국과 인민은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조선중앙통신】

2호발전소 발전설비수송전투 빛나게 결속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백두산선군청년2호발전소건설장에서 전력생산의 동음이 울려퍼질 날을 앞당기는 기쁜 소식이 련이어 전해지고있다.

지난 7월말에 발전설비조립전투가 시작되여 온 건설장에 새로운 약동의 기상을 더해주는 속에 7일 발전설비의 마지막부분품을 실은 자동차수송대렬이 현지에 도착하였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와 인민무력부의 수송전사들은 7월 중순에 집중수송렬차로 무산역에 도착한 수백t의 발전설비를 단 4일만에 운반한데 이어 7월 21일과 31일 두차례에 걸쳐 청진항에 도착한 발전설비들을 이번까지 모두 수송해왔다. 하여 2호발전소에서 비상히 높이 세운 조립일정에 따라 발전설비조립을 다그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2호발전소 여러 대상의 건축공사들이 마감단계에 들어선 조건에서 발전설비조립을 다그치자면 설비운반을 앞세워야 한다.

현장련합지휘부의 일군들은 이런 확고한 립장에서 대안의 로동계급이 만든 발전설비들을 하루빨리 현지에 도착시키기 위한 작전을 잘하였다. 해당 성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부분품별 수송통로를 확정하고 설비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즉시 집중적인 수송전투를 치밀하게 조직지휘하였다.

지난 7월 하순과 8월초에 청진항으로부터 발전소까지 발전설비들을 운반하기 위한 전투가 긴장하게 벌어졌다.

현장련합지휘부 책임일군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백리 수송길을 밟아보며 도로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평양시려단의 대원들을 동원하여 여러 개소에서 다리우회도로들을 보강하는 등 도로의 기술적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전투를 기동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자동차수송대렬을 직접 인솔하고 청진까지 달려간 지휘부책임일군들은 해당 부문의 도움밑에 발전설비하차 및 상차작업을 진두에서 지휘하였다. 함경북도당위원회 일군들은 발전설비수송전투를 함께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능력이 큰 기중기차를 비롯한 조건보장사업을 잘해주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운수대대와 8.28청년돌격대관리국 운수기동려단 지휘관들과 운전사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멀고 험한 거리를 달려 발전설비수송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이곳 지휘관들은 수백리 수송길을 앞장에서 달리며 도로상태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대형추레라운전사들과의 창조적협의를 부단히 강화해나갔다. 박영철동무를 비롯한 운전사들은 백두전역에서 높이 울릴 전력생산의 동음이 자신들의 운행길에 직접 달려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분발하였다. 전시수송길을 달리는 심정으로 비가 오는 속에서도 굽이가 많은 령길들을 한m한m 극복해나갔다. 그리하여 지난 7월 24일 직경이 5m가 넘는 고정자를 비롯한 가장 덩지큰 발전설비부분품들을 현지까지 성과적으로 운반하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련이은 두차례의 수송전투로 첫 항차분의 발전설비들을 운반해온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의 수송전사들은 8월초에 또다시 2차에 걸치는 긴장한 수송전투를 벌림으로써 전량의 발전설비수송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현지보도반

세포지구에 희한한 풍경을 펼쳐간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21세기 본보기축산기지로 훌륭히 일떠서고있는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땔감문제, 전기문제를 푸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전기문제, 땔감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짜고들었다.

기계과학기술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세포지구 축산기지에 적합한 메탄가스발생장치에 대한 연구와 설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꾸준한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세포지구는 바람이 세고 겨울철기온이 낮을뿐아니라 동결심도가 깊어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들에 도입한 메탄가스발생장치로는 겨울철메탄가스생산을 할수 없었다.

교원, 연구사들은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우리 나라의 현실조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두엄더미에서 나오는 열을 리용하여 겨울철메탄발효온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기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열계산과 모의시험을 진행하여 태양열온실과 퇴적장을 결합한 새로운 메탄발효장치를 설계하였다.

이곳 연구집단은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특성에 맞는 메탄발효장치설계와 시공방안을 확립한데 기초하여 지난해 5월 세포군에 10㎥짜리 메탄발효탕크 2개를 시범적으로 건설하고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취사용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발동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였다.

이들은 메탄발효탕크겉면을 20여㎥의 두엄으로 완전히 덮고 시험을 진행하였다. 올해 1월의 강추위속에서도 메탄발효탕크의 발효액온도는 15℃이상이였으며 가스는 정상적으로 나왔다.

겨울철현장도입시험에서 과학기술적담보와 신심을 얻은 연구집단은 시험과정에 나타난 우결함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시범탕크설계를 완성하였으며 올해 3월 대성지도국돌격대가 맡아 건설한 소우리에 도입하였다.

지금 대성지도국돌격대가 맡아 건설한 메탄발효탕크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메탄가스가 생산되고있다. 하여 소우리관리운영과 함께 여러 세대들에 공급되여 취사용으로도 쓰이고 전기문제해결에도 기여하고있다. 현재 기계과학기술대학의 연구집단은 메탄발효탕크를 수지로 만들어 리용하고있는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우리 나라에 흔한 파수지를 가지고 수지메탄발효탕크를 제작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그리고 앞으로 세포지구 축산기지에서 나오는 집짐승배설물로 메탄가스발전소를 건설하며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발효찌끼로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만들어 고리형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도 진척시키고있다.

한편 전기공학부의 연구사들도 바람조건이 그 어느곳보다 좋은 세포지구에 풍력발전기를 적극 도입하기 위하여 현지를 밟아보면서 풍력자원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2kW풍력발전기를 설계제작하고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이번에 또다시 거둔 과학연구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불타는 충정과 애국적헌신의 자랑찬 열매이다. 이들의 피타는 사색과 탐구, 애국의 열정에 받들려 머지않아 세포지구 축산기지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을 끝없이 꽃피워주는 희한한 새 풍경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민족의 전설적영웅, 절세의 애국자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 전민항쟁에로 부른 위대한 령도

간백산밀영에 새겨진 력사의 자욱을 따라

조국해방 70돐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20성상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일제식민지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신 불멸의 조국해방업적이 백두산 줄기줄기에 력력히 어려있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간백산밀영을 찾은 우리의 마음은 끝없이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시다.》

간백산은 백두산에서 남동쪽으로 30여리가량 떨어져있었다. 무두봉에서 도로를 따라 몇시간 가니 아름드리 이깔나무들이 들성들성 서있는 넓은 벌판을 지나 몇십정보는 실히 되여보이는 초원이 나졌다. 백두산밑의 산속에 이런 벌판이 있는가싶게 신비경을 펼쳐주는 이 초원에 간백산밀영이 자리잡고있었다. 밀영의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강사가 항일무장투쟁시기 간백산밀영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었다.

간백산밀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성원들이 1930년대 후반기 간백산지구에 꾸려놓은 비밀근거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나 간백산밀영에 오시여 불멸의 혁명활동을 벌려나가시였다.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조성된 국내외의 정세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5(1936)년 2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를 소집하시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혁명가들의 임무를 밝히시면서 그 당면과업으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국경일대에 새로운 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근거지창설을 위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해 9월 국내 백두산일대에 나오시여 비밀근거지를 꾸리는 사업을 료해하시고 백두산밀영건설사업을 몸소 지도하여주시였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백두산지구에 비밀근거지를 꾸릴데 대한 임무를 받고 국내에 파견되였던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성원들은 천연요새를 이룬 대원시림을 리용하여 백두산밀영과 함께 간백산지구에도 밀영을 꾸려놓았다.

간백산밀영지구의 1구역으로 들어가는 골짜기어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제비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천연화강석을 다듬어세운 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다음과 같은 교시가 새겨져있었다.

《간백산밀영은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전민항쟁을 위한 핵심육성기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한 근거지였으며 조국해방작전시기에는 국내진공을 앞둔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집결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한자한자 읽어가느라니 조국해방위업을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으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바쳐오신 크나큰 심혈의 세계가 안겨오고 그럴수록 간백산밀영이 항일혁명투쟁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가가 가슴뜨겁게 새겨졌다.

곰취와 무수해들이 한벌 덮인 초원을 지나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니 사령부귀틀집이 나졌다. 사령부귀틀집에 놓인 책상과 걸상, 그우에 놓인 지북침과 연필, 벽에 걸린 군용지도를 가리키며 강사는 항일의 사연깊은 이야기를 감명깊게 들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7(1938)년 9월 간백산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장소는 혁명의 사령부를 찾아 항일의 전장들에서 온 주력부대의 지휘관들과 경위중대 지휘관들, 백두산지구 밀영책임자들, 소부대, 소조책임자들로 어깨성을 이루었다.

회의는 일제의 대륙침략전쟁확대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조선인민혁명군의 배후타격전과 국내진출에 의한 정치군사활동, 일제의 파쑈적인 탄압으로부터 혁명조직을 보호하고 확대하며 국내 여러 지역에 비밀근거지를 꾸려 유격활동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닦아지고있던 환경속에서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북선반일인민유격대 조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시고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국내 여러 지역을 료해한 정형을 총화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로동자돌격대, 생산유격대와 같은 전민항쟁을 위한 반군사조직을 확대강화할데 대한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반군사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전민항쟁을 조직지도할수 있는 핵심육성사업을 잘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간백산밀영에 핵심육성기지로서 강습소를 꾸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주체29(1940)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백산밀영에서 백두산주변일대에서 활동하고있는 소부대, 소조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에서 제시된 전략전술적방침을 전달해주신 다음 그 관철을 위한 소부대, 소조들의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적극 보좌해드리시였다. 회의후에는 각지로 떠나는 소부대, 소조성원들의 출발준비를 보살펴주시면서 그들의 활동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0(1941)년 6월 또다시 밀영에 오시여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앞에서 《쏘일중립조약》의 본질을 해설하시고 어떤 정세하에서도 우리자신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하고 조선혁명을 완수하겠다는 강의한 의지와 신념을 가질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주체적립장을 고수하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방향에서 투쟁을 벌려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 구호에는 철두철미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우리 혁명을 완수하려는 확고한 립장과 우리 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이며 그것을 완성할수 있는 힘도 우리 인민에게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반영되여있었다.

사령부가까이에는 경위대원실이 있었다. 들목이며 온돌자리들이 옛모습을 더듬게 하는 집터자리와 천막자리들을 지나가니 숙영지 한가운데에 커다란 물황철나무가 억센 아지를 펼치며 서있었다. 물황철나무의 무성한 잎은 때없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우산처럼 막아주고있었다. 일제를 몰아낸 최후공격작전을 앞둔 어느해 여름 간백산밀영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나무밑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지금은 그 나무가 실히 자라 보기드문 거목이 되였다.

우리는 백두의 물줄기를 생명수로 하여 반세기가 넘도록 푸르싱싱 자란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 혁명의 깊고도 억센 뿌리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6월 또다시 간백산밀영에 오시여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조직지도하시였다. 전반적정세가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에 유리하게 조성되고있던 시기에 열린 회의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이상 군정간부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주체적혁명력량이 마련된데 대하여 총화하시고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때려엎고 조국을 해방할데 대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발표하시였다. 최후공격작전계획에 일관된 전략적의도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공격작전과 그에 배합한 전인민적항쟁으로 일제를 완전히 격멸소탕하고 조국해방을 이룩하는것이였다.

강사의 해설은 계속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백산지구에 집결한 부대들은 청진이남지역과 함경남도를 해방하고 이어 평안남북도, 황해도, 강원도를 비롯한 모든 도들에 진출하여 적들을 소멸하고 그 지구를 장악하며 두만강연안에 집결한 부대들은 북부국경일대에 집결한 일제침략군을 소탕한 후 청진해방전투를 벌려 이 지구를 장악하며 흔련기지에 있는 항공륙전부대들은 신속히 국내의 여러 혁명근거지들을 차지하고 무장대오를 급속히 확대하며 군사행동을 적극 벌리는 한편 인민들을 전민봉기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간백산초원에 나섰다. 기세차게 밀려오던 구름떼가 흩어지는 순간 백두산 향도봉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발이 뚜렷이 안겨왔다. 항일투사들도 바로 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조국해방을 위한 전구에로 신심높이 떠났으리라. 바로 이 초원에서 그해 6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및 병사대회가 성대히 열렸다는 강사의 이야기로 우리의 격정은 더해졌다.

백두산기슭의 드넓은 들판, 사방 높은 산에 둘러싸인 천험의 요새지인 간백산밀영의 초원에 완전무장을 갖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꽉 들어 찼다. 아침 10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이미 대회장에 들어와 정렬해있던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올리며 환호를 올렸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후공격작전계획과 관련하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국내외의 정세를 분석하시고 우리 혁명발전에서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할수 있는 혁명력량이 충분히 마련되고 최후결전준비가 완성된데 대하여 언급하신 다음 최후공격작전을 위한 각 부대들의 임무를 제시하시고 당면하게 지휘관, 병사들앞에 나서는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이 끝나자 또다시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간백산밀영을 편답하는 우리에게는 백두산발들을 쩡쩡 울리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히 울려오고 주체적무장력으로 성장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름름한 모습이 눈에 삼삼 안겨왔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총검을 높이 들어 환호를 올리던 초원에 붉은기를 휘날리며 답사자들이 들어서고있었다. 삼지연—신무성, 무봉을 거쳐 기본도로를 따라 행군하여온 답사자들과 선오산, 곰산 지름길을 헤쳐온 대학생답사자들의 모습과 항일선렬들의 모습이 력사의 공간속에 엇바뀌여 지나가는듯싶었다. 간백산밀영에서 만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관은 가슴가득히 끓어오르는 흥분을 다잡으며 격정을 터놓았다.

《간백산밀영참관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민족해방전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는것을 더욱 절감하였습니다.

우리는 백두의 혁명정신을 천백배로 발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총대로 받들어가는데서 영예로운 임무를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혁명로선은 오늘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가는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항일의 전구 간백산밀영은 이 력사의 진리를 력력히 되새겨주고있었다.

특파기자 전철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광음식점거리를 현지지도하신 30돐을 맞으며 기념보고회들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광음식점거리를 현지지도하신 30돐과 창광봉사관리국, 창광종합식당창립 30돐 기념보고회가 8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보고회들에는 최영남 인민봉사총국장, 관계부문, 해당 단위 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들에서는 창광봉사관리국 국장 박경호, 창광종합식당 지배인 김영순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광음식점거리를 현지지도하신 30돐과 관리국, 종합식당창립 30돐을 맞으며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인민사랑의 력사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역앞에 새로 건설하고있는 창광거리를 음식점거리로 잘 꾸릴데 대해 몸소 발기하시고 건설과 봉사운영준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74(1985)년 8월 9일 훌륭히 완공된 창광음식점거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여러 식당들을 돌아보시면서 음식점거리에서 료리의 질과 봉사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는 인민봉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계기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그후에도 음식점거리의 경영과 해당 단위들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원자재보장대책을 세워주시고 최상의 봉사조건도 마련해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창광음식점거리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봉사활동을 잘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뜨거운 보살피심속에 지난 30년간 음식점거리는 인민을 위한 대중봉사기지로 강화발전되였으며 관리국과 종합식당의 봉사활동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인민봉사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난 30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봉사망현대화를 비롯하여 식당내외부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리고 식당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어놓은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수도의 중심부에 사랑의 음식점거리를 세워주시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봉사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받들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료리사, 접대원들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를 간직하고 료리의 질을 높이며 봉사조직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봉사성을 더욱 높여 우리 당의 은정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사적건물들을 원상대로 보존관리하고 봉사설비들에 대한 점검과 관리사업을 잘하며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들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인민봉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항일혁명투쟁사가 전하는 전설같은 이야기들

소탕하에서의 일행천리

주체26(1937)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소탕하의 밀림에 이르렀을 때였다.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소탕하골안에 가두어넣고 《동기대토벌》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하였다.

어느날 밤이 되자 소탕하의 수십리 골안에 우등불의 바다가 생겨났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겹겹이 에워싸고있는 적들의 불무지들이였다.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결사전을 벌릴 비장한 생각을 하였고 최후를 각오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불무지들이 가득 들어찬 골안을 굽어보시며 포위망을 뚫고나갈 묘책을 생각하시였다. 적들의 병력을 타산해보시고 적의 후방이 텅 비여있을것이라는 것과 큰길쪽의 포위환이 비교적 약하다는것을 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민지대에로의 탈출과 큰길행군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결심에 따라 행군대오는 적들의 불무지를 피해가며 큰길쪽으로 조용히 빠지였다. 큰길에 나서니 개미 한마리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모든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측하신대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여러개의 마을을 거침없이 통과하며 동강으로 일행천리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대병력의 포위를 돌파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현실앞에 적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유격대의 전술은 귀신도 곡할 전술이다.》, 《조선빨찌산에는 제갈량을 찜쪄먹을 도사가 있다.》는 말이 전해져 인민들에게 신심을 안겨주었다.

적진에서의 대낮휴식

주체30(1941)년 항일유격대가 안도현을 지나 왕청현으로 가는 행군길에서 있은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부대가 적들의 군사요충지의 하나인 로두구를 통과하던 도중 날이 밝기 시작했다.

언제나와 같이 여유작작한 표정으로 적정을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어두울 때까지 여기서 쉬여가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큰길을 마주하고있는 어느 한 농가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어지간히 시간이 흘렀을때였다.

총을 꼬나든 놈들이 우르르 밀려들어왔다. 뜻밖의 정황에서 누구도 어쩌지 못하고있는데 갑자기 누구냐 하는 벼락같은 목소리가 집안을 들었다놓았다.

살기등등해있던 놈들은 깜짝 놀라 사시나무떨듯 하며 **김일성**부대가 출몰했다는 정보를 듣고 나오던 길인데 제발 잘못했다고 손을 비벼댔다.

우리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추상같이 호령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엄앞에 적들은 그만 기절초풍하고말았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에게 우리가 떠난 다음 상관을 찾아가서 **김일성**부대를 만났다는것을 보고하라고 이르시고는 출발명령을 내리시였다.

다음날 아침 이 사실을 알게 된 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대담무쌍한 담력과 비범한 지략에 너무도 놀라 뒤따를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기묘한 유인매복전

항일무장투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조선인민혁명군의 행처를 찾아 헤매던 수백명의 적들이 홍두산밀영으로 기여들었다.

당시 밀영에는 수십명의 대원들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정을 살피시며 대원들에게 홍두산의 남쪽릉선을 차지하도록 명령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들이 이 일대의 지형을 잘 모르는 약점을 리용하여 달려드는 놈들을 칼날같이 생긴 릉선에 몰아넣고 호되게 답새겨버릴 신묘한 지략을 펼치시였던것이다.

몇명의 대원들이 적들을 아군의 매복진지앞으로 유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격명령을 내리시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달려드는 놈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첫 타격에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적들은 릉선을 차지하려고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적들은 거기에 올라설념을 하지 못하고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군 하였다.

그때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맹렬한 집중사격으로 원쑤들에게 복수의 명중탄을 퍼부었다. 이날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도망친 놈들도 조선인민혁명군의 야간습격에 의하여 또다시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그후 일제놈들은 《유격대의 유인매복전에 걸려들면 뼈다귀도 못 찾는다.》고 하면서 공포속에 벌벌 떨었다.

본사기자

신념으로 바라보신 미래

조국해방 70돐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항일대전의 나날에 새겨진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되새겨져 한없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일제의 백만대군을 삼대베듯 쓸어눕히시던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가운데는 드놀지 않는 혁명신념으로 조국해방의 날을 내다보신 전설과도 같은 사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참으로 위대한 인간, 위대한 영웅, 위대한 령도자이십니다. 위대하다는 말만 가지고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다 표현할수 없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분이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우리 나라는 과연 언제면 해방이 될것인가?

당시 조선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이것이였다.

피눈물을 뿌리며 조국을 떠나 이국살이를 하는 왕청땅 쟈피거우마을사람들도 모여앉으면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판을 펼쳐놓군 하였다.

하지만 누구도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수 없었다.

그러던 주체30(1941)년 여름이였다.

그즈음 날아드는 소식은 모두 불길한것들뿐이였다.

이해 봄에는 쏘련(당시)과 일본이 손을 잡고 화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니 얼마후에는 파쑈도이췰란드군대가 쏘련을 침공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하루밤 자고나면 파쑈도이췰란드군대가 쏘련의 어느 도시를 점령했고 그 다음날에는 또 어느 도시를 먹었다는 소문뿐이였다.

마을의 좌상로인은 이러다가 고향에 가보지 못하는것이 아닌가고 한탄만 하였다. 그래서 한때 다른 나라에서 그 무슨 활동을 하다가 마을에 와서 계몽사업을 한다는 한 젊은이에게 물었더니 그도 조국해방이 한 10년후 아니면 20년후에 되겠는지 하고 막연한 소리를 하는것이였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실망하였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오직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이께서 마을에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마을사람들이 기다리던 날은 드디여 왔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를 거느리시고 왕청일대에서 활동하시던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마을에 잠시 들리시였던것이다.

마을사람들은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르며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렸다.

《장군님, 우리 조선이 언제쯤 독립됩니까?》

하루를 천년맞잡이로 해방의 날을 기다리는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시고나서 확신에 찬 어조로 앞으로 3~4년간 더 참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꼭 광명한 날이 온다고 하시였다.

비록 길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마을사람들의 격정은 참으로 컸다.

우리 수령님의 이 말씀은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구체적으로 타산하신데 기초한 과학적인 예언이였으며 또 기어이 이 기간내에 조국해방을 이룩하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의지의 세찬 분출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때로부터 4년후인 주체34(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했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이 마을에도 날아왔다.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마을사람들앞에서 좌상로인은 무릎을 치며 말했다.

《파시 우리 장군님은 하늘이 낸분이시야. 그렇지 않구서야 칠흑같이 암담하던 그 세월에 어떻게 오늘을 내다보실수 있었단 말인고.》

그후 이 사실은 우리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전하며 사람들속에 널리 퍼지게 되였다.

본사기자 정순학

서해지구를 행군하는 조선인민군 군인들

조국해방전쟁사적지에서 위대성교양모임 진행

【평양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혁명의 성산 백두산지구에서 출발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이어달리기가 계속되고있다.

혁명의 붉은기를 대오앞에 펄펄 휘날리며 서해지구를 행군하는 인민군군인들은 백두의 대업을 총대로 굳건히 받들어나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히며 자강도와 평안북도를 거쳐 평남땅에 이르렀다.

행군기간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는 고산진혁명사적지와 금천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다.

14명 육탄자폭용사들의 위훈비를 찾은 인민군군인들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기의 성과적발사를 보장하기 위한 작전에 참가하여 영웅적위훈을 떨친 전투비행사들과 상봉하였다.

상봉모임을 통하여 그들은 전투비행사들이 발휘한 조국결사수호정신을 금은보화를 주고도 살수도 바꿀수도 없는 총잡은 병사의 가장 소중한 정신적재부로 깊이 새겨안았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이어달리기대렬은 8일 조국해방전쟁사적지에 도착하였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0(1951)년 1월부터 주체42(1953)년 7월까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로 정하고 계시면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주신 성스러운 땅이다.

이날 조국해방전쟁사적지에서 인민군군인들은 위대성교양모임을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모임장소에 입장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인민군위원회 위원장 리창길이 발언하였다.

그는 백두에서 높이 추켜든 혁명의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며 최후승리의 영원한 7.27을 안아오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전승의 력사가 새겨진 곳에서 뜻깊은 모임을 가지였다고 말하였다.

모든 군인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면 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드팀없는 의지를 간직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견결한 조국수호자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축하시 《조국은 백두산총대청년전위들에게 축하를 드린다!》에 이어 합창 《**김일성**대원수만만세》, 《조선인민군가》 등의 노래가 모임장소에 울려퍼졌다.

이어 무대에 나선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항일혁명선렬들의 심장마다에 백동치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구호를 천만의 심장속에 새겨주시며 조국해방 70돐을 맞이하는 전군의 청년전위대오를 뜻깊은 행군길에 세워주시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혁명의 전세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조국해방을 이룩하고 전승의 7.27을 맞이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반미대결전에서 승리의 력사를 떨쳐온것처럼 천출명장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달려 영원한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자고 호소하였다.

모임이 끝난 후 인민군군인들은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돌아보았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이어달리기대렬은 이날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혁명렬사릉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항일선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받들어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한편 이날 인민군군인들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참관하였다.

서해지구를 행군하는 조선인민군 군인들 조국해방전쟁사적지 참관

10월에로 향한 총공격전에서 령도업적단위들의 전투력을 높이 떨치자

비약의 지름길은 어떻게 열렸는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면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울수 있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가 령도업적단위답게 대고조의 앞장에서 기세차게 달리고있다. 세멘트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고 생산능력조성을 위한 설비개건사업도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사람도 그 사람, 설비도 그 설비이다. 하다면 어떻게 되여 최근에 이런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되고있는것인가.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몇가지 주목되는 문제를 보기로 하자.

누구의 심장에 먼저 불을 달았는가

당위원회는 기업소가 령도업적단위답게 대고조의 앞장에서도록 하는데서 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대중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조건에서 그들을 잘 준비시키고 역할을 높이게 한다면 사상교양의 실효를 더욱 높일수 있기때문이였다.

당위원회는 우선 초급선전일군들을 준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기업소의 선동원들과 로농통신원들로 양덕군에 있는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조직한것도 그들이 수령의 위대성을 알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하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정치사업방법들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당초급선전일군들이 답사를 마치고 기업소로 돌아온 후에는 보고 느낀 소감을 자기 단위 종업원들앞에서 발표하게 하였으며 격식과 틀이 없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화선식으로,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대중과 늘 함께 일하며 생활하고있는 초급선전일군들을 내세워 진행한 교양사업은 그들과 교감이 잘되여 실효가 매우 높았다. 그것은 그대로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실천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배나 되는 세멘트를 생산하는 놀라운 혁신이 창조된것이다.

이렇듯 초급선전일군들의 심장에 먼저 불을 지핀것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온 기업소에 기적창조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데서 그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게 되였다.

진정과 열풍

서 당위원회가 중시한 두번째 고리는 과학기술열풍을 세차게 일으킨것이다.

이 사업에서 당위원회가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것은 인재와의 사업이다.

인재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그들의 정신력과 재능, 열정을 남김없이 폭발시킬수 있다.

문제를 이렇게 본 당위원회에서는 그들과의 사업을 진정을 바치는 마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갔다.

하나의 실례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지난 6월 어느날 아침 기업소의 아홉명의 기술자들은 긴급지시를 받고 당위원회청사마당으로 달려왔다. 그곳에 와서야 자기들이 정양소로 떠나게 되였다는것을 알게 된 그들은 설비개건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갈수 없다고 완강하게 제기해나섰다.

책임비서 렴치권동무는 정양소로 떠나는것은 당위원회가 동무들에게 주는 특별과업이라고 그루를 박았다. 하여 설계원 리원일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이 온 기업소의 관심속에 정양소로 떠나게 되였다. 정양소에 도착한 그날 정양생들의 일일영양식사표까지 작성해주고난 당책임일군은 기술자들에게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푹 휴식하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그후에도 당책임일군은 200리 떨어진 곳에서 정양생활을 하고있는 기술자들을 또다시 찾아와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었다.

이런 당일군의 진정어린 모습은 기술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잊지 못할 인상을 새겨주었다.

당위원회일군들의 이런 옳은 처방과 실효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정치사업방법들은 많다. 그 모든 방법들이 응당한 실효를 거두자면 대중의 요구와 심리에 맞는 옳은 처방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실을 통해 기업소당위원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지난 7월초 분기생산총화를 앞두고 협의회가 있었다. 당책임일군이 혁신자들로 국제친선전람관참관사업을 조직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자 일군들은 술렁거렸다.

설비개건사업과 생산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조건에서 로력이 매우 긴장한데 많은 인원을 뚝 떼여 참관을 보냈다가 실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수습하겠는가고 하는 일군도 있었다.

당책임일군은 일군들에게 며칠전 소성직장에 내려갔을 때의 일을 상기시켰다.

그때 로동자들은 텔레비죤화면을 통해 국제친선전람관을 볼 때마다 한번 꼭 찾아가 자기 눈으로 보고싶었다고, 참관으로 밑진 일은 돌아와서 몇배로 봉창하겠다고 열렬히 제기했다는것이였다.

그때 일을 이야기하며 당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로동자들을 위해 우리 일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제친선전람관참관사업이야말로 그들의 요구와 심리에 맞는 가장 위력한 정치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일군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되여 기업소의 혁신자들이 국제친선전람관에 대한 참관의 길에 올랐다.

참관을 갔다온 후 혁신자들은 열흘동안에 해야 할 일감을 사흘동안에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러니 옳은 처방을 가지고 진행하는 정치사업이야말로 얼마나 큰 실효를 안아오는것인가.

그렇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령도업적단위일수록 단위의 대중발동의 무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이 사업을 보다 방법론있게 심화시켜나가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힘있게 강조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달라진 목표, 새로운 발걸음

함흥의학대학 당위원회 사업에서

어느 단위나 자기의 발전목표가 있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이 있다.

그런데 결과는 서로 다르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비약하는 단위가 있는가 하면 조건이 비교적 좋은데도 거부기걸음을 하는 단위도 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것인가.

령도업적단위의 면모를 잘 갖추고 과학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함흥의학대학 당조직의 사업을 통해 이 문제를 분석해보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원대한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새것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데서 개척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완강하게 내밀어 끝장을 보는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몇해전 당비서로 임명되여온 김성희동무가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찾게 된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발전목표에 관한 문제였다.

령도업적단위인 대학의 발전목표가 당의 의도에 맞게 응당한 높이에서 세워지지 못한것은 단순히 실무적으로만 대할 문제가 아니였다. 일부 일군들이 현실적조건에 맞게 세웠다고 하는 바로 그 목표에 일군들의 뒤떨어진 사상관점과 일본새가 그대로 비껴있었던것이다.

당비서는 이 문제를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심각히 분석했다.

물론 조건은 어렵다. 하지만 목표는 거기에 정비례하는것이 아니다. 당의 의도와 단숨에의 기상으로 비약하는 현실의 요구, 바로 이것이 목표의 기준이다. 그 가능성은 대중의 정신력에 있으며 그 방도는 우리 일군들의 사상관점에 있다.

당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목표를 새로 수립하기 위해 일군들과 교직원, 대학생들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대중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혁신적인 안들이 끝없이 쏟아져나왔다.

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와 혁신적인 안들에 기초하여 통이 큰 목표를 세우게 되였다. 사상교양거점들과 교육과학전시관, 실험실습실, 교실, 강좌사무실, 기숙사호실, 위생문화시설들을 비롯한 대학안의 모든 건물들에 대한 내외부개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인 전자도서관건설과 운영, 야외학습터와 고려약실습포전꾸리기, 학위학직소유자대렬장성…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표였다. 목표수립과정은 구태의연한 일군들을 잠에서 깨여나게 한 사상개조과정이기도 하였다.

당위원회는 목표점령을 위한 실천을 배우 중시하였다.

당조직에서는 당위원회위원들과 일군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첫걸음부터 보폭을 크게 내짚도록 하였다.

학장 박근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두몫세몫씩 일감을 지고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북도벽면에 5대교양과 관련한 직관판들을 새로 제작설치하는 사업에서도, 기숙사개건공사에서도 아니 모든 전투의 맨앞장에는 언제나 일군들이 있었다. 일군들의 헌신의 발걸음, 열정의 발걸음따라 온 대학이 떨쳐나섰다.

높이 세운 목표가 하나하나 점령되였다.

연혁소개실이 도적인 본보기로 훌륭히 꾸려지고 청사내외부가 완전히 일신되는 등 령도업적단위의 면모가 새롭게 갖추어졌다. 교육과학사업에서도 비약이 이룩되였다. 지난해에만 하여도 근 30명이 학위학직소유자대렬에 새로 들어섰고 학생들의 학과실력이 비약적으로 뛰여올라 전국적인 전시회, 경험토론회들에 대학의 교원, 연구사,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등 대학의 전반사업은 큰걸음을 내짚게 되였다.

결론은 명백하다.

이 단위처럼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당의 의도와 현실의 요구에 맞게 목표를 높이 세우고 불같은 실천을 따라세우면 그 어느 단위나 비약할수 있다는것이다.

본사기자 김향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모습

은천군 량담농장에서

팡 파르릉—

밤하늘을 찢어발기는듯 한 천둥소리에 사무실에서 쪽잠에 들었던 농장의 일군인 최철웅동무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대충 비옷을 걸치며 전지를 찾아쥐고 그는 서둘러 문밖으로 뛰쳐나갔다.

기상예보를 통해 폭우가 내린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는 쏟아지는 폭우속을 헤치며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던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주변에서 분주히 뛰여다니는 사람들을 보았던것이다.

비바람에 쓰러지는 나무를 안아 일으켜세우기도 하고 모자이크벽화를 비쳐주는 조명등에 한방울의 비물이라도 스며들세라 자기 비옷을 벗어씌우며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있는 사람들속에는 초급당비서 김종운동무도 있었다.

순간 그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령도업적단위들이 앞장서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속에는 자기가 이 농장에 처음 임명되여왔을 때 초급당비서가 하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나깨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단위의 일군이라는 자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령도업적단위의 일군!

그의 눈앞에는 농장에 와서 한해사이에 감동깊이 체험한 사실들이 영화화면처럼 흘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연혁소개실을 새롭게 꾸리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군과 도는 물론 사리원과 평양으로 밤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사상교양거점을 보다 훌륭히 꾸려놓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자자구구 심장에 쪼아박아준 당일군, 우리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중도반단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농장과 작업반들마다에 축산토대를 그쯘히 꾸려놓기 위해 앞채를 메고 끌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간 당일군, 혹심한 왕가물로 올해 모내기를 제철에 끝낼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 농장주변을 흐르는 가름천을 몇번이나 오르내리며 끝내 그 해결방도를 찾아낸 당일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는 길에서는 언제나 앞채를 메고 한몸을 깡그리 불태우며 대중을 이끌어온 이런 당일군들이 있어 농장이 오늘 령도업적단위답게 농사와 축산, 농장꾸리기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도적으로 확고히 앞선 단위로 될수 있은것이 아니겠는가. …

쿵—쿵—

어느덧 한풀 꺾인 천둥소리가 저 멀리 산너머로 멀어지기 시작했다.

조금후에는 내리던 비발도 뜸해지고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때에야 비로소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쭉 펴는 초급당일군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여있었다.

순간 최철웅동무의 귀전에는 들려왔다.

또 하루 대오의 앞장에서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기수의 힘찬 구령소리, 우렁찬 나팔소리가!

본사기자 채인철

성과를 담보한 옳은 관점

청진스레트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초급당비서 허태일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연혁소개실을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새로 건설할것을 발기하고 한창 기초공사를 추진하고있었다. 종업원들의 앙양된 열의로 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가 벌어지는 속에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었다.

이와 동시에 긴장한 생산전투를 벌려나가자면 제기되는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이튿날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표식비에 대한 해설사업을 조직하였다.

전후복구건설시기 공장에 찾아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종업원들에게 초급당일군은 절절히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미 수십년전에 스레트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앞에는 계획을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정황이 조성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을 떠나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간다고 말할수 있는가. …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사가 현지지도표식비의 글줄로만, 연력사의 갈피에만 새겨져서는 안됨을 깨우쳐주는 이야기였다.

종업원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실천적인 사업성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충직하게 받드는 길이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는 참다운 길임을, 연혁소개실을 새로 훌륭히 꾸리는것도 바로 그때문임을 그들은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로동계급의 비상한 각오와 분발심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켰다.

생산건물이설이 한창이여서 지붕을 거의 들어낸 현장에서 생산을 계속 내미는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로동자들은 곳곳에 불을 피우고 스레트생산전투를 중단없이 벌리였다.

초급당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맹렬한 사상공세를 들이댔다. 연혁소개실건설장의 혁신의 새 소식들을 전해주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라시던대로 대고조진군의 앞장에 서자고, 높은 생산실적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앞에 떳떳이 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종업원들모두가 매일매일의 사업실적을 위대한 수령님들께 마음속으로 보고드리며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속에 계획은 빛나게 완수되였다.

그 과정에 초급당위원회가 찾은 교훈이 있다.

절세위인들의 력사를 전하는 사상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려놓고 높은 생산성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 때 령도업적단위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순영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정주기관차대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숭고한 인민관을 새겨주신 헌신의 자욱

락랑위생용품공장을 돌아보고

락랑위생용품공장은 조업한지 3년밖에 안되는 공장이다. 그래서인지 이 공장에 대한 표상은 사람들속에 별로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락랑》상표를 단 위생용품은 우리 인민의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다.

《락랑》위생용품의 질이 최고이다. 우리 제품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고있는 제품보다 더 좋다!

이것이 바로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인민의 목소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7월 공장제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향을 보고받으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몸소 공장을 찾으시였다.

뜻밖에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옵고 어쩔줄 몰라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우리 원수님께서는 공장제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영이 좋다는데 이런 보고를 받을 때면 정말 기쁘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시내중심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있는 락랑위생용품공장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은 이렇게 새겨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강도강행군길을 걸으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애써 마련해놓으신 현대적인 공장들과 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러가지 위생용품이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리용되기까지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우리 인민들에게 질좋은 위생용품을 공급해주시려고 해당 일군들에게 위생용품견본도 보내주시고 현대적인 위생용품공장을 건설하도록 은정깊은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정히 받들고 류경경제교류사 일군들이 현대적인 위생용품생산공정을 일떠세우기 위한 작전을 설계하고 힘있게 내밀었다.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에서의 위생용품생산실태를 빠짐없이 료해한 교류사일군들은 위생용품공장을 첨단설비를 갖춘 생산공정으로 꾸리기 위해 일판을 통이 크게 전개하였다.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인민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하루빨리 가닿게 할 한마음안고 설비조립전투를 벌리던 때는 2011년 말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하고 그이를 공장에 모실 날만을 그리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던 이들은 천만뜻밖에도 민족대국상의 비보를 접하게 되였다.

비분속에 오열을 쏟으며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심장속 맹세를 뜨겁게 다지고다졌다. 하루빨리 질좋은 위생용품을 팡팡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기쁨의 보고를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올리려는 신념의 맹세였다.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일떠선 이들은 빠른 기간안에 최신설비들에 대해 정통하였고 맡은 공정에 대한 기술기능을 이악하게 습득하여 다음해 4월부터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울리였다.

공장에서 생산의 동음을 울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3년,

물론 길지 않은 나날이지만 공장의 제품이 편파성이 없이 그 질이 계속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대하는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깨끗한 량심과 충정이 어리여있다.

무심히 볼수 없는 질좋은 위생용품은 이렇게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가닿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해나가고있는 이들의 성과를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여 그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을 찾아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위생용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영이 좋을수록 그들이 무엇을 더 요구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위생용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평양산원에 공급해주고있는 애기기저귀에 대한 평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애기기저귀와 함께 1회용물소독종이도 꼭 만들어서 같이 보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새로운 생산공정들을 더 꾸리는 문제를 비롯하여 제품포장공정을 비롯한 전반생산공정의 무인화실현 등 위생용품생산의 발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필요한 대책까지 몸소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날의 현지지도는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심장속만이 아닌 소비품생산을 맡은 모든 경공업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속에 깊이깊이 새겨졌다.

어느 공장제품이 제일이라는 인민의 목소리가 스스럼없이 울려나올수 있게 제품의 질에 피타는 정열을 쏟아붓자, 이것이 락랑위생용품공장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을 접하고 더욱 비상히 높아진 각지 소비품생산자들의 각오이다.

공장에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자욱은 온 나라 소비품생산자들의 심장마다에 이렇듯 소중히 새겨졌다.

본사기자 리철옥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김가공품생산기지

평양대경김가공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만나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입니다.》

우리 인민들이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고있는 김제품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는데 대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맛좋고 영양가높은 김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먹이시기 위하여 김양식장면적을 늘이며 김가공품생산기지를 현대적으로 일떠세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일군들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김가공품을 수출하려고 하는것을 료해하시고는 김은 우리 인민들에게 먹여야 한다고, 평양아동백화점에 넣어 아이들이 등산하러 갈 때 김밥도 싸가지고 가게 하여야 한다고 그 공급대책까지 취해주시였다.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은 이렇게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해주시려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선 수산물가공기지이다.

하기에 지난 7월 이곳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질좋은 김가공품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라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라고 하시면서 김가공품생산과 관련하여 자신께서 직접 받은 교시만도 정말 많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공장의 김가공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구이로에서 나오는 구운참김의 맛을 몸소 보아주시면서 맛이 독특하고 참 좋다고, 이렇게 약간 비릿비릿하면서도 고유한 김맛이 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우리 나라 참김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김가공품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들도 미처 모르고있는 김가공품의 종류와 세계적인 김가공방법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생산현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 만나뵈온 녀성가공작업반장은 격정에 겨워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몇가지 가공품생산에 만족하여 김가공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얼굴을 들수 없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가공품의 종수를 50가지로 늘일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우리 식의 새로운 김가공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더 꾸려놓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공장을 다녀가신 후에는 김가공과 관련한 많은 기술자료들도 보내주시였다.

그 하나하나의 자료들을 보고 또 보며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복무자가 되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당부를 뼈에 새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김가공품생산에서 하루빨리 전변을 안아오려는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세는 지금 하늘에 닿았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김가공과 관련한 기술자료들을 연구하면서 우리 식의 새로운 김가공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너도나도 떨쳐나섰다.

본사기자

양어를 근기있게 내밀어 덕을 본다

수안군 룡현협동농장의 양어분조는 오래전부터 많은 물고기를 길러 농장원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고있다.

농장에서는 례성강의 한 지류에 7정보의 양어장을 건설하여 물고기를 기르고있다.

분조에서는 오래전부터 종자로 쓰는 물고기를 자체로 해결하고있다.

또한 12개의 종자물고기 및 새끼물고기못에서 자체로 알을 받아 깨워 새끼물고기를 보장하면서 다른 단위들에도 공급해주었다.

그러던 분조에서 여러해전부터 양어장의 물량이 줄어들어 물고기기르기에서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게 되였다.

이러한 때 분조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군당책임일군은 물이 있는 모든 곳에서 양어를 대대적으로 할데 대한 당정책을 다시금 깊이 해설해주면서 양어장의 물보장방도를 토론하였다.

이 과정에 초당 0.4㎥로 흘러나오는 샘물을 양어장으로 흘러들게 하자는 안이 제기되였다.

농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샘물을 모조리 잡을수 있게 큼직한 뚝을 쌓아 양어장을 건설하였다. 이렇게 되여 분조원들은 신심에 넘쳐 물고기기르기를 다시 내밀수 있게 되였다.

분조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1만 5 000여마리의 새끼물고기와 2만여마리에 달하는 룡정어와 잉어, 초어, 기념어를 넣어주었다.

지금 분조에서는 새로 만든 양어장에서 물고기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많은 물고기를 생산하고있다.

특파기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대고조전투장에서 애국의 삶을 빛내여간다

황해남도물길공사장에서

결사관철의 낮과 밤이 흐르는 격전장

자강도려단에서

어제날의 새 기록이 오늘날에는 낡은것으로 되고있는 황해남도물길공사장에서 위훈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수놓아지고있는가.

우리는 맡겨진 공사과제를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결사관철하기 위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자강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에서 그 대답을 찾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강도사람들은 우리 당력사에서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혁명의 난국을 앞장에서 헤치며 락원의 행군길을 열어놓은것처럼 앞으로도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기수가 되고 전위대가 되여야 합니다.》

철잠관공사가 한창이던 어느날 려단앞에는 뜻하지 않은 정황이 조성되였다. 주타격방향인 철관조립을 맡은 단위에서 기일을 보장하기 힘들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되였던것이다. 직경이 3m이상 되는 덩지큰 철관을 네토막씩 굴대에 올려놓고 조립하는 방법으로는 좀처럼 공사기일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현장에서 격식없는 협의회가 열리였다. 일부 일군들은 철관을 조립해본 경험도 기술도 부족한 조건에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것이 어떤가고 하였다.

이때 려단정치부장 최길준동무는 그렇게 하면 조립속도를 보장할수 있는가고 물었다.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을 둘러보며 정치부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돌이켜보라.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우리 자강도사람들이 어떻게 받들었는가. 당의 사상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 때 당정책관철을 위한 묘안도 나올수 있다. …

그의 절절한 호소는 모두의 심금을 울리였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자강도사람의 본때를 다시한번 보여주자. 일군들은 이런 결심으로 어떻게 하면 철관조립속도를 높이겠는가 하는데로 사색과 토론을 지향시켜나갔다. 이런 속에 철관을 올려놓는 지구를 든든하게 보강하고 굴대를 더 설치하여 철관을 아홉토막씩 올려놓고 조립하자는 려단장의 합리적인 방안이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려단에서는 종전보다 철관조립속도를 2배로 높일수 있는 구체적인 작전과 공사일정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려단의 시공일군들은 철관개수를 늘여 아홉토막씩 조립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전려단에 돌격구령이 힘차게 울리였다. 꺼질줄 모르는 용접불꽃으로 하여 철관조립전투장은 포성없는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군소리가 없고 직선적이며 내용이 명백하고 호소성이 강한 화선식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사회주의경쟁열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분초를 다투며 혁신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길에서는 조직하고 포치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수 없다. 이런 자각은 일군들로 하여금 언제나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게 하였다. 또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그들은 수백리 밤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들의 뒤를 따라 돌격대원들도 떨쳐나섰다.

숙소로 오가는 시간마저 아까와 그들은 현장에서 침식을 하며 전투를 벌렸고 용접공들은 오랜 시간의 용접으로 눈이 쓰리였지만 교대없는 전투원이 되여 작업을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가 벌어지는 속에 철관조립에서는 련일 새로운 위훈이 창조되였다.

어찌 이들뿐이랴.

어느날 시중군대대에서는 밤새 내린 비로 하천의 물이 불어나 공사장이 물에 잠길수 있는 정황이 조성되였다. 더우기 장마가 예견되는것으로 하여 공사일정이 지연되면 공사를 두달동안 중지해야 할 상태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 물음에 대대의 돌격대원들은 결사관철로 화답해나섰다. 대대의 일군들은 립체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렸다. 작업장으로 흘러드는 물을 막기 위해 하천에 뚝을 쌓고 물길을 돌려 공사를 순간도 중단하지 않았다. 물이 불어나 뚝이 허지면 돌격대원들은 몸으로 물줄기를 막았고 양수기가 멎으면 작업도구로 물을 퍼냈다. 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었고 돌격대원들은 더 많은 혼합물을 나르기 위해 손에서 맞들이를 놓지 않았다.

당정책을 말로써가 아니라 고귀한 피와 땀으로 결사관철해나간 대대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계획된 200여㎥의 콩크리트치기를 단 48시간동안에 결속할수 있었다.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이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한m한m 승리의 결승선을 향해 철잠관이 뻗어가고있다.

글 및 사진 전명일

황해북도려단에서

새 기록, 새 기적창조의 원동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황해북도려단이 언제나 대오의 기수가 되여 앞장에서 달릴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당의 뜻대로 새 기록, 새 기적창조의 원동력은 기술혁신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간데 있다.

여기서 려단의 일군들이 중시한것은 기술혁신이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한것이다.

콩크리트잠관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투장들에서는 물동운반량이 훨씬 늘어났고 로력은 물론 휘틀과 철근을 비롯한 자재들도 더 많이 요구되였다.

이런 현실은 기술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려단의 일부 일군들은 기술혁신은 기술자들이나 하는것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발벗고나서지 않고있었다.

유능한 작전가, 솜씨있는 지휘관의 특기는 무슨 일이든지 과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는데 있다. 이로부터 려단에서는 기술혁신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기하고 여기에 일군들이 앞장서며 대중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렸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앞에 다진 맹세를 실천하자면 기술혁신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결과 많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되여 공사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려단장 신성철동무가 발기한 하천을 통과하는 잠관시공방법을 놓고보자.

종전의 시공방법대로 하면 콩크리트잠관공사에 많은 철근이 들어가는것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을 도입하면 든든한 암반을 기초로 리용하는것으로 하여 수십t의 철근을 절약하면서도 공사량을 훨씬 줄일수 있고 공사속도를 종전보다 2배로 높일수 있다. 또한 시공이 헐하고 잠관이 받는 압력을 최대한 줄여 콩크리트잠관의 안전성도 담보할수 있었다. 이것은 다른 려단들의 주의를 끌었다.

이렇게 려단일군들부터가 기술혁신에 옳은 관점을 가지고 앞장에 선 결과 돌격대원들도 신심에 넘쳐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신주막잠관에 대한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날이였다. 하천을 통과해야 하는 콩크리트잠관인것으로 하여 이 공사는 물과의 전투였다. 수만㎥의 토량을 처리하여 물길을 돌리였지만 때없이 내리는 비로 하여 콩크리트치기를 해야 할 작업구역으로 계속 물이 흘러들었다.

려단일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돌아보며 돌격대원들을 만나보기도 하면서 방도를 모색하였다. 돌격대원들속에서 좋은 안이 나왔다. 그것은 콩크리트치기를 하는 곳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작업구역안에 물길을 내여 한쪽으로 흘러드는 물을 양수기로 퍼올리자는것이였다.

이렇게 되면 불어난 하천의 물이 흘러들어도 콩크리트치기를 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내밀수 있었다. 이것은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이 방법은 콩크리트잠관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대대들에 다 도입되였다.

공사장마다 화선식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결국 이 모든것은 일군들이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찾아낸 귀중한 씨앗들이고 언제나 려단이 앞장에서 나갈수 있게 한 기적창조의 열쇠로 되였다.

경험은 일군들이 기술혁신의 선구자가 되여 혁신의 돌파구를 열어나간다면 어디서나 새 기록, 새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시공의 질은 물길건설자의 량심

평안남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무엇을 하나 건설하여도 이쯤하면 된다는식으로 함것이 아니라 요구성을 높여 모든 건설대상을 당과 인민이 요구하는 수준, 세계적높이에 이른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워야 합니다.》

건설에서 질보장의 기준은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이다. 바로 이것을 철석의 신념으로 새겨안은 평안남도려단의 일군들의 사업에서 남다른것이 있다.

시공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중시한것이다. 초당 10여㎥의 물이 통과하는 물다리를 건설해야 하는 이 공사에서 중요한것은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질적으로 하는것이였다.

려단에서는 물다리를 건설해본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일군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의 참뜻을 실천에 옮긴다면 얼마든지 이 공사를 해낼수 있다. 일군들은 이런 결심으로 물다리공사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해나갔다.

어느날 안주시대대의 작업현장을 돌아보던 려단장 장익환동무는 한가지 사실을 알게 되였다. 콩크리트치기에 리용할 자갈을 두고 시공일군이 이런 자갈은 쓸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일부 돌격대원들속에서 자갈의 크기가 좀 다르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고 하면서 그대로 쓰자는 의견이 제기된것이였다.

이 사실을 놓고 려단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설계를 아무리 잘하여도 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당과 인민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건축물을 일떠세울수 없다고 가르쳐주시였다. 하지만 우리는 자갈 하나에도 당을 받드는 물길건설자의 깨끗한 량심이 비끼게 된다는 애국심을 대대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 새겨주지 못하지 않았는가. 깨닫게 되는바가 컸다.

려단일군들은 대대에 내려가 공사의 질보장은 물길건설자의 깨끗한 량심에 달려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 과정에 파쇄기를 만들어 자갈들의 크기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좋은 안도 찾게 되였다. 그 안대로 하면 공사의 질을 담보하는 자갈크기를 보장하고 생산량도 늘일수 있었다. 그리하여 려단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파쇄기를 만들어 자갈문제를 해결하게 되였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도 당을 받들고 조국을 사랑하는 깨끗한 충정과 량심으로 일해나갈 때 실천의 구호로 될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려단일군들은 기계식진동다짐기를 공기식진동다짐기로 개조하는것도 중요한 문제로 보았다.

긴장한 전기사정으로 하여 혼합물을 다지는데서 기계식으로 된 진동다짐기는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있었다.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짜고든 결과 기계식진동다짐기를 압축기를 리용한 공기식진동다짐기로 개조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물다리공사에서 높은 공사속도와 질을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이 사실을 안 안주시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군중동원의 방법으로 마련한 파철로 물다리공사에 필요한 10여t의 철근을 해결하여 보내주었다. 그것은 그대로 공사실적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경험은 물길건설자의 깨끗한 량심을 바칠 때 공사의 질도 담보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완강한 난관극복정신으로

함경남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조건도 어려운 황해남도물길공사장이다. 하지만 하루빨리 어머니 우리 당에 완공의 보고를 올릴 하나의 지향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는 함경남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단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단숨에 끝장을 보고야마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창조본때를 본받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결사관철하자.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슴가슴은 이런 철석의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높뛰였다.

화선식정치사업이 벌어지는 속에 홍원군대대와 고원군대대가 맡은 명굴공사장에서는 비약의 불바람이 몰아쳤다.

처음 두 대대가 이 공사의 첫걸음을 떼였을 때 작업조건이 불리한것으로 하여 모두가 우려하였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기초굴착이 한창인 작업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였던것이다. 한m를 파내면 메워지고 또 파내면 다시 메워졌다. 물론 조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와닥닥 해제낀다고 누구도 탓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과제를 조건이 좋으면 해제끼고 조건이 불리하면 앉아서 기다릴 그들이 아니였다.

대대의 일군들이 물초롱을 들고 뛰여들었다. 비록 《나를 따라 앞으로!》의 돌격구령은 울리지 않았어도 그들의 행동은 천백마디의 말을 대신하였다.

이 사실은 전려단에 알려지게 되였다. 그때부터 모든 대대들에서 련대적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정평군대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앞장에 섰다.

어느날 대대앞에는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다. 기운차게 돌아가던 압축기의 통음이 멎었던것이다. 압축기를 수리기지까지 운반하여 수리하자면 며칠이 걸려야 했다.

그때 힘차게 울리는 함마질소리가 들리였다. 대대정치지도원이였다.

귀중한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완공의 그날이 멀어지게 된다. 몸이 열조각, 백조각이 난다고 해도 당앞에 결의한 날까지 기어이 물길굴을 완공하자.

그의 모습에서 이런 불같은 호소를 받아안은 당원들이 앞장섰고 청년들이 따라나섰다. 야무진 함마질소리와 함께 전시가요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졌고 전투장은 다시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돌격대원들은 휴식도 미루고 낮에 밤을 이어 돌격전을 벌리였다.

려단에서는 그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휴식명령을 내리였다. 하지만 대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물길굴을 완공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한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그날의 투쟁정신으로 전투를 이어나갔다.

이런 투쟁기풍이 어찌 홍원군, 고원군, 정평군대대들에서만 발휘된것이랴.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불타는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려는 그들의 마음은 온 려단에 하나의 지향으로 이어져 단숨에의 기상을 낳게 하였다.

글 특파기자 박철
사진 본사기자 김광혁

우리 나라 외무상과 말레이시아외무상 회담

【평양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말레이시아를 공식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외무상과 다뚝 아니파흐 아만 말레이시아외무상의 회담이 7일에 있었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은 말레이시아외무상이 마련한 연회에 초대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제 및 무역, 투자와 관련한 설명회에 참가하였다.

공화국내각에서 제16차 국제수영련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김국향선수를 위하여 연회 마련

【평양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제16차 국제수영련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김국향선수를 위하여 8일 옥류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영훈체육상, 리종무 조선인민군 장령, 관계부문 일군들, 선수권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선수, 감독들, 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용진내각부총리가 연설하였다.

그는 당이 안겨준 불굴의 신념과 배짱을 지니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세계만방에 높이 떨친 김국향선수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나이도 어리고 국제경기에 처음 참가한 김국향선수가 세계적인 강자들을 모두 누르고 물에뛰여들기종목에서 세계선수권을 쟁취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우리 체육인들의 자그마한 재능의 싹도 귀중히 여기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지칠줄 모르는 힘과 열정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이 있었기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체육선수들이 백두의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국제경기들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김국향선수가 답사를 하였다.

그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체육강국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체육인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영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물에뛰여들기 10m고정판경기에서 우승하고 시상대에 올라 애국가가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속에 높이 오르는 탐홍색공화국기를 바라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솟구치는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체육인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훈련과 경기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구현한 빨찌산식공격전법으로 본때있게 하여 위대한 내 나라를 금메달로 빛내여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10월의 대축전을 더 높은 로력적성과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돌격대원들이 휴식참에 모여앉았다.

모두의 얼굴마다에 맡은 대상건설에서 위훈을 창조해가는 긍지와 기쁨이 넘쳐난다.

부족한것이 많고 어려운 속에서 세포지구의 사나운 비바람, 눈바람을 이겨내며 혁신을 이룩할수 있게 한 비결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정신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의 뜻이 어려있고 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는 세포등판을 기어이 인민의 만복을 꽃피우는 사회주의대지로 전변시키려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애국충정, 바로 이것이 혁신창조의 원동력으로 되였다.

리혁성, 전명건동무를 비롯한 위원회와 돌격대의 일군들이 불씨가 되여 전투장에 위훈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대중을 새 기록창조에로 떠밀어주었다.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더 분발하자는 중대장 서준민동무의 호소에 화답하는 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서 이런 맹세가 끓어번진다.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을 더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리!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싱가포르에 가는 국가품질감독위원회대표단 출발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국제규격화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민족규격화단체 책임자들의 국제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 리철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품질감독위원회대표단이 8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철민 국가품질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송하였다.

남조선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일행이 떠나갔다

남조선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와 일행이 8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이 녀사와 일행을 전송하였다.

방문기간 리희호녀사와 일행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평양육아원, 애육원, 평양양로원을 돌아보았으며 묘향산을 찾아 국제친선전람관과 보현사를 참관하고 명승지의 여러곳을 유람하였다.

재일본조선인가라데도협회대표단이 떠나갔다

송수일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가라데도협회대표단이 8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고마운 이웃들

저는 동대원구역 동대원2동 1인민반에서 사는 전쟁로병입니다. 제가 편을 든것은 저를 위해주는 고마운 이웃들을 자랑하고싶어서입니다.

우리 인민반주민들은 저와 한집안식구처럼 다정하게 지내고있습니다. 그들속에는 국립연극단 배우 강은주동무네 가정과 담배련합기업소 아래단위 로동자 김영진동무네 가정도 있습니다. 지난 여러해동안 이 가정들에서 전쟁로병인 저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제가 처녀시절 손에 총을 잡고 원쑤 미제를 쳐부시는 싸움에 나선것은 이 나라 공민으로서 너무도 응당한 일이지만 이들은 전쟁로병이라고 저를 극진히 대해주고있습니다.

두 아이를 가진 어머니로서 강은주동무는 직장일을 하는 바쁜 속에서도 자주 찾아와 건강은 어떠한가, 식사는 제대로 하는가 일일이 알아보고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군 합니다. 김영진동무도 철이 바뀔 때마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약도 마련해주군 합니다.

이번 전승절에도 저를 찾아온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전쟁로병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 진정한 애국자들이라고 하시였다고 하면서 제가 온 하루를 즐겁게 보내도록 해주었습니다.

정말이지 나날이 뜨거워지는 다정한 이웃들의 진정을 대할 때마다 이 땅우에 숭고한 도덕의리의 화원을 펼쳐준 어머니당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가슴을 적시군 합니다.

고임순

사랑의 거리에 넘치는 행복의 웃음소리

창광봉사관리국 식당들을 돌아보며

우리 당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손길아래 창광음식점거리가 일떠선지도 어언 30년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 10년이 세번이나 흐른 오늘 이 거리의 모습도 많이 변하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식당들도 어느것이나 다 특색있고 거리의 풍치를 돋구어주며 잘 자란 사철푸른 잔디들도 푸른 주단을 펼쳐놓은듯싶어 볼수록 우리 마음 부풀게 한다. 하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의 세계가 이 거리에 소중히 깃들어있다.

인민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며 제일 좋은 명당자리에 전문식당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워주시고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답게 봉사활동을 잘해나가도록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모습이 뜨겁게 어려오는 이곳이 아니던가.

오늘도 인민의 밝은 웃음 넘쳐흐르는 이 거리는 우리 수령님들의 위대한 사랑의 력사를 전하며 끝없이 속삭이고있다.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에 받들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얼마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기념일을 앞두고 창광봉사관리국 식당들을 찾았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사무치는 그리움에 받들려서인가 온 거리가 막 설레이는것만 같아 가슴이 후더워올랐다.

우리는 창광봉사관리국의 책임일군인 박경호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로정을 따라 식당들을 돌아보았다.

《력사의 그날 우리 수령님들께서 들리시였던 곳은 저기 보이는 짜장면집과 이쪽에 있는 서양료리집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듯 특색있는 전문식당들이 어떻게 되여 수도의 중심부에 일떠서게 되였는지 다는 모를것이라고 뜨거움에 젖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창광음식점거리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낮이나 밤이나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여기신 우리 장군님께서 안아오신 위대한 충정의 결정체였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고 인민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창광거리에 음식점거리를 꾸릴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차례나 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훌륭히 완공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선 곳은 당시 금강생맥주집으로 불리우던 흑맥주집이였다.

안에 들어서니 봉사시간이 되면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맥주로 더위를 가시며 기쁨에 넘쳐있을 근로자들의 모습이 방불하게 어려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준공을 며칠 앞둔 주체74(1985)년 8월 6일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새로 건설한 우리 음식점거리를 찾아주시였습니다. 그때 여기에도 사랑의 발자취를 남기시였습니다.》

그날 금강생맥주집을 비롯한 여러 식당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접대원들의 옷차림문제, 식당이름을 식당의 특성이 살아나게 지을데 대한 문제 등 봉사운영준비에서 나서는 세부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렇듯 세심한 손길이 있었기에 창광음식점거리는 조국해방 40돐을 앞둔 주체74(1985)년 8월 9일 현대적인 인민의 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던것이다.

이어 우리가 들린 곳은 서양료리집이였다.

이곳은 우리 인민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족료리와 음식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다른 나라 료리와 음식도 맛보게 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웅심깊은 사랑속에 마련된 특색있는 봉사기지였다. 그래서인지 원형으로 된 건물내부에 어울리게 놓여진 식탁들이며 무수한 물방울들이 해빛을 받아 반짝이는것 같은 느낌을 주는 무리등의 구슬알들, 손님들이 음악감상도 할수 있게 갖추어져있는 음향기재들이 더욱 정겹게 안겨왔다.

현지지도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식당망으로 구성된 음식점거리에서 료리의 질과 봉사수준을 높여 인민봉사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한 방향과 방도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어버이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비껴들었다.

새로 건설된 창광봉사관리국 청사와 지하차고에도, 봉사활동에 편리하게 새롭게 꾸려진 원자재보관 및 1차가공기지와 랭동공장에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식당들에도…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창광음식점거리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의 력사가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임일군의 목소리는 한없는 고마움에 뜨겁게 젖어있었다.

우리는 해빛밝은 거리에 다시 나섰다. 한폭의 그림같이 펼쳐진 사랑의 거리가 깊은 의미를 새겨주며 뜨겁게 안겨왔다. 그러느라니 창광봉사관리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한결같이 하던 말이 더욱더 깊은 여운을 안고 메아리쳐왔다.

수도의 중심부 제일 좋은 자리에 우리 거리가 있다고,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절세위인들의 마음속 제일 가까이에 우리 인민이 안겨산다고 심장으로 터치던 격정의 목소리가.

인민의 웃음꽃을 가꿔가는 원예사들

거리에 나선 우리의 눈앞에 봉사시간에 맞추어 쉬임없이 밀려오는 사람들의 물결이 비껴왔다. 마치 온 거리에 꽃바다를 펼쳐놓은듯싶었다.

이 아름다운 화폭속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유훈을 받들어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꽃을 더 활짝 피우기 위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뜨겁게 슬배여있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는것을 언제나 봉사활동의 지침으로, 생활의 신조로 삼았다.

하기에 이들은 음식점거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는 사업과 식료가공공장현대화 등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해낼수 있었으며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적극 이바지하는 수많은 명료리들도 만들어내놓을수 있었다. 그 나날에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들도 많았다.

우리의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여러곳들에 나가 그 지방의 토법들을 배워오던 나날에 있었던 일들, 210여가지나 되는 감자음식과 수백가지나 되는 특색있는 건강보양음식들을 내놓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가 하면 해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백두산밀영고향집 강사들과 현지인민들에 대한 이동봉사를 진행하고 돌아올 때 떠가지고온 소백수의 물을 손님들에게 봉사하던 뜻깊은 사연들…

우리는 이런 불같은 열정이 차넘치는 속에 창광봉사관리국이 지난 30년간 엮어온 자랑찬 력사를 아래의 자료들을 통해서도 뜨겁게 새겨볼수 있었다.

—국기훈장 제1급, 2중3대혁명붉은기, 26호모범기대영예상 수여, 모범체육단위칭호 쟁취.

—해마다 진행되는 태양절료리축전을 비롯한 전국적인 료리경연들에서 10여차에 걸쳐 1등.

—전국적인 감자음식봉사의 본보기단위, 주문봉사의 시범단위.

—연두부를 리용한 에스키모가공방법, 떡국편절단기, 수동식잔디깎는기계 등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 이룩.

…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색과 열정을 바쳐왔고 또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을것인가.

문득 30년을 여기에서 일해온 사계절식당 책임자인 공훈료리사 김금선동무가 하던 말이 되새겨졌다.

《현지지도의 그날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잘해나가라고 그처럼 절절히 당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 때없이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군 합니다. 유훈관철정형을 인민에게서 평가받자, 항상 이런 자각과 각오를 안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이 말에 다 실려있었다. 영광의 일터를 더욱 빛내이며 인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해가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불보다 뜨거운 마음이, 이런 마음들에 받들려 사랑의 거리를 찾는 인민의 얼굴마다에 피여나는 행복의 웃음꽃이.

그래서인지 거리의 모습은 더 밝고 아름다왔다. 영원한 태양의 빛발이 비쳐드는 사랑의 거리, 행복의 거리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끝없이 흘렀다.

조 향 미

각지에서 보내여온 글작품들을 보고

승리자로 만납시다

조국해방 일흔돐, 당창건 일흔돐이 가까와올수록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천만군민의 불같은 열의는 더욱 높아가고있다. 전국각지의 독자들이 본사편집국으로 끊임없이 보내여오고있는 글작품들에도 이런 전인민적감정이 뜨겁게 넘쳐흐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청진시에 사는 방명선동무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힘찬 투쟁에 의해 날로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수령복, 장군복, 태양복을 대를 이어 누려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더더욱 절감하고있다고 하면서 한편의 시를 보내여왔다.

…

대대손손 누리는 수령복
얼마나 긍지스러우냐
자랑스러우냐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오른다
눈물이 솟구친다
뜨거운 심장에서 분출된 기쁨과 그리움이
용암처럼 끓어번지며 활화산되여 솟구친다
…

그는 시에서 백두의 기상을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조선의 승리는 영원할것이라고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충정은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게 하고있다.

평양시에 사는 박희동무가 창작하여 보내여온 가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를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

단숨에 달려가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리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자 우리는 승리한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맞으시였던 백두의 칼바람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살며 투쟁할때 점령 못할 고지는 없으며 승리의 전통은 영원할것이라는 우리 인민의 진정의 토로가 뜨겁게 어려있는 글작품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마냥 후더워오른다.

평양시의 김금성, 송영애, 순천시의 윤창록, 경원군의 정심, 선천군의 주영림, 신계군의 림근성, 평원군의 김동국동무들…

수많은 독자들이 보내여온 글작품들의 구절구절을 되새길수록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무기로 삼고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천만군민의 심장의 웨침이 금시라도 들려오는것만 같다.

승리자로 만납시다!

본사기자

창의고안명수가 즐겨찾는 곳

남포시정보통신국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밑에 온 나라에 학습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오늘 어디서나 꽃펴나는 이야기가 있다. 날로 늘어나는 로동자발명가, 창의고안명수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얼마전 남포시정보통신국을 찾았던 우리는 과학기술로 전진하는 오늘의 시대가 꽃피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곳 종업원들속에서 로동자창의고안명수로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전송작업반의 송정국동무, 그가 정보통신국에서 일한지는 10여년이 된다.

이 기간에 그는 여러건의 창의고안을 하여 자기 단위사업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지난해에 또다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제신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는데 도움을 주는 성과자료를 내놓았다. 어떻게 되여 평범한 로동자인 그가 창의고안명수의 영예를 계속 빛내이고있는것인가.

《비결이랄게 있습니까. 과학기술보급실의 덕입니다.》

기발한 착상은 저절로 떠오르는것이 아니다. 착상을 떠올릴수 있는 기초가 있어야 한다. 그 기초가 바로 부단히 축적되는 지식이다.

송정국동무에게 있어서 과학기술보급실은 풍부한 지식을 주고 탐구의 나래를 한껏 펼칠수 있게 한 귀중한 길동무였다. 그전같으면 여러권의 책을 놓고 며칠씩 읽어가며 터득했던 지식을 과학기술보급실에서는 훨씬 빠른 시간에 보다 풍부히 소유할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과학기술보급실의 콤퓨터를 마주하면 자기가 알고싶은 문제들에 대한 답이 척척 나오고 특히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수가 있어 더욱 성수가 난다는것이였다. 그래서 그는 짬시간만 있으면 과학기술보급실을 찾군 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것이 눈섭이라고, 그만큼 졸음을 이겨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과학기술보급실에서는 그 졸음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는 그의 말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리고말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은 후더워올랐다.

조국의 부강번영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열렬한 애국의 마음과 더불어 과학기술보급실을 즐겨찾고 시간을 아껴가며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는 그의 열정이 불덩이마냥 뜨겁게 안겨왔기때문이다.

《배움의 열의만 높으면 누구나 발명가, 창의고안명수가 될수 있습니다. 어디 가나 훌륭하게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자기 단위에서도 일군들은 물론 종업원들모두가 과학기술보급실을 즐겨 리용하며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참으로 깊은 여운을 주는 말이였다.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 위대한 사랑이 있어 평범한 근로자들도 일하면서 마음껏 배움의 나래를 펼치며 발명가로, 창의고안명수로 자라나고있는것 아니랴.

온 나라에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는 학습열풍속에 더더욱 늘어날 발명가, 창의고안명수들의 미더운 모습들을 그려보게 하는 로동자의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지식경제강국으로 줄달음치는 내 조국의 숨결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본사기자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워가고있다.
—령대탄광에서— 본사기자 찍음

개성지방의 천연기념물들

개성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들중에는 천연기념물들도 많다.

성균관느티나무

개성시 방직동에 있는 나무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81(1992)년 5월 성균관을 찾아주시였을 때 몸소 보아주신 사적이 깃들어있다.

나무는 성균관과 함께 보존되여오는 귀중한 자연재부이다.

성균관에는 성균관느티나무와 함께 천연기념물들인 두그루의 은행나무도 자라고있다.

성균관느티나무는 1 000여년 자랐는데 높이는 31m정도이다.

개풍은행나무

개성시 남포리에 있는 개풍은행나무에는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투쟁력사가 깃들어있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인민은 적들을 이곳 벌판에서 전멸시켰는데 이 은행나무곁에 지휘처를 정하고 큰 승리를 이룩하였다고 한다.

높이는 25m정도이다. 나무는 암나무이며 네개의 원가지가 갈라져있어 밑이 닭알모양을 이루고있다.

판문탱자나무

개성시 동창리에 있는 판문탱자나무는 탱자나무로서는 우리 나라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이다.

1945년에 심은 이 나무의 높이는 4.6m정도이고 나무갓의 직경은 5.6m정도이다.

이곳 토양은 누기가 많은 편이다. 나무는 포기모양을 이루고 독립수로 자란다.

이 나무는 개성이남지역에 주로 분포되여있다.

판문탱자나무는 서해안일대에서 제일 큰 탱자나무이다. 일반적으로 탱자나무는 귤나무의 번식용으로 쓰이므로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천연기념물로서 개성회화나무, 개성금송, 삼거리느티나무, 만월대느티나무 등이 있다.

우리는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나라의 귀중한 재보인 천연기념물들을 더 잘 보호하고 관리해나가야 한다.

송도사범대학 학부장 신 철 호

뇌수질병과 뇌기능강화제

뇌수는 사람의 생명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체의 로화와 함께 뇌수도 기능이 떨어지며 각종 뇌질병이 산생된다.

일반적으로 뇌로화는 사람들의 개체적특성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보통 50대 후반기~60대부터 서서히 혹은 급속히 나타난다.

정서장애, 기억력장애, 운동장애 등은 뇌로화의 대표적인 증상이며 이것은 뇌질병의 시초라고 말할수 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로인들이라고 하여도 일정한 크기의 뇌연화소견이 있다고 할수 있다.

뇌로화는 간질세포가 늘어난 상태이다.

다시말하여 실질세포수는 줄어들고 간질세포수는 증가된 상태이다.

뇌수에서 간질세포수의 증가는 뇌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며 로인성치매증, 뇌혈전, 뇌출혈과 같은 치명적인 뇌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도 될수 있다.

이로부터 세계적으로 뇌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약물개발에 힘을 넣고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인된 대표적인 약물은 뇌수유래펩티드제제인 세레브로리진주사약이다. 세레브로리진주사약은 동물의 뇌수분해물로서 각종 뇌수유래펩티드, 글루타티온, N—아세틸—L—아스파라긴산 등 뇌수세포보호와 뇌수영양강화, 뇌기능회복에 필요한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있다.

뇌기능강화제인 이 주사약은 로인성치매증, 혈관장애성치매증, 뇌타박후유증, 탄가스중독후유증, 뇌졸중치료에서 효과가 매우 높은 약물로 인정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학과학기술교류소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는 과정에 세레브로리진주사약에 대한 우리 식의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완전히 국산화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자랑많은 발명가가정들

아버지와 딸의 경쟁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경축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는 평성시에서 온 발명가부녀도 참가하였다.

아버지는 평안남도구장병에방원에서 부원장으로 사업하는 황일국동무이고 딸은 백송종합식료공장 3대혁명소조원인 황원경동무이다.

누구나 그러하지만 이들부녀도 뜻깊은 올해를 평범하게 보내고싶지 않았다.

가치있는 발명품을 한가지씩 내놓자, 이들은 이렇게 결심하였다. 은근한 경쟁이 벌어지는 속에 아버지는 구강치료과정에 요구되는 아래턱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결정할수 있는 수자식측정장치를 착상하고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제작하였다. 이미 여러건의 국가발명권을 받은 발명가가 역시 달랐다. 온 집안의 관심은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되고 아직까지 발명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딸에게로 쏠리였다. 하지만 딸의 승벽심 또한 간단치 않았다.

밤낮이 따로 없이 고심하던 그는 끝내 두부나 콩산유를 생산하는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의 리용효률을 보다 높일수 있는 착상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심화시켜 부산물을 종전처럼 그대로 집짐승먹이로 리용하지 않고 한번 더 처리하여 한가지 제품을 더 만들고 남은것을 먹이로 쓸수 있도록 하는 실리있는 방법을 내놓았다.

이번 전람회에서 아버지는 은메달을, 딸은 동메달을 받았다.

3부자발명가들의 긍지

온 나라에 세차게 일고있는 과학기술열풍과 더불어 발명과 새 기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적극 불러일으킨 이번 전람회에는 3부자발명가가정의 자랑을 꽃피운 남창덕, 남경철, 남경일동무들도 참가하였다.

고등교육도서출판사 주필로 사업하고있는 아버지 남창덕동무는 경제적실리와 현실적의가 큰 코로나—고주파전기선별기를, 보건부문 연구사로 일하고있는 맏아들 남경철동무는 건조수식혜모글로빈을,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교원인 둘째아들 남경일동무는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진 기능성발효음료인 살구발효술과 살구씨술을 출품하였다. 이렇게 3부자가 나란히 전국적인 전람회에 참가한 긍지는 참으로 높았다. 둘째아들 남경일동무의 말에 의하면 비록 차이나는 평가를 받았어도 발명을 더 많이 하여 당의 품속에서 키워온 지혜와 재능과 열정을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깡그리 바쳐가려는 발명가부녀의 경쟁열의, 애국의 마음은 하나와 같다.

훌륭한 발명가부녀가 또 태여난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런 발명가가정, 발명가대렬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힘은 그만큼 커지고 과학기술강국에로 향한 우리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질것이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본사기자 려 명 희

3부자가 다 발명가로 되기까지

3부자가 다 발명가로 되기까지는 자기 가정에서 종종 펼쳐지군 한 열기띤 과학기술론쟁의 덕이 컸다고 한다.

대학졸업생들인 아버지와 두 아들, 두 며느리들이 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어 최첨단돌파전의 앞장에서 열정을 바쳐가니 이 가정의 자랑은 얼마나 많으랴.

수십개의 새 기술등록증과 발명증서들이 그러한 자랑중의 하나이다. 나날이 커가는 자랑속에 남창덕동무는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고 두 아들은 자기 연구분야의 당당한 실력가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어제날에는 대학생가정, 연구사가정, 오늘은 3부자발명가가정, 이것이야말로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비약하는 대고조시대에 꽃펴나는 큰 자랑이 아니겠는가. 이런 자랑이 늘어날수록 우리 조국은 비약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칠것이니 참으로 돋보이는 가정이였다.

김 성 민

◎ 누구나 알아야 할 우주상식(1) ◎

지구관측위성

지구관측위성은 광학 및 전파관측기재를 비롯한 각종 원격측정수단들을 리용하여 지구상의 자원과 자연환경, 기상변화를 관측하는 위성으로서 과학기술위성에 속한다.

전형적인 지구관측위성의 고도는 500~1 000km이며 궤도는 태양동기극궤도이다.

2012년 12월 12일에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른 우리의 《광명성—3》호 2호기가 바로 이러한 지구관측위성이다.

일반적으로 지구관측위성에서 보내오는 관측자료들은 기상예보, 농업, 림업, 국토관리, 수산업, 광물자원탐사, 건설, 도시경영, 운수, 재해방지, 환경보호, 력사유적물발굴 등 여러 분야들에서 중요하게 쓰이고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산줄기들이 백두대산줄기와 하나로 련결되여있다는것을 해명한것도 지구관측위성의 사진자료를 리용한 결과이다.

지구관측위성을 리용하면 사막의 모래밑에서 고대유적을 발굴하고 밀림에 가리워져 땅우에서는 좀처럼 발견할수 없었던 새로운 강도 찾아낼수 있다.

지구관측위성의 도움으로 지난 시기 무거운 측량기구들과 배낭을 메고 험한 산발을 톺아오르며 지형측량을 하던 어렵고 힘든 일들도 없어지고 짧은 시간에 다양한 주제의 지도들을 아주 정확히 작성할수 있게 되였다.

지구관측위성에서 보내온 자료를 리용하면 지도작성에서 종전보다 자금을 1/12~1/15밖에 쓰지 않으면서 지도작성속도는 3~4배나 더 높일수 있다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어느 한 나라에서는 지구관측위성의 자료를 리용하여 매장량이 540억t이나 되는 석탄매장지와 40만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할수 있는 물자원을 비롯하여 18개의 석탄매장지와 29개이상의 천연가스 및 원유매장지를 찾아냈으며 여러개의 동광맥과 니켈광맥도 발견하였다고 한다.

오늘날 지구관측위성자료는 세계적으로 상품으로 거래되고있다. 위성자료수신국이 없는 나라들에서는 위성자료를 비싼 값으로 사다가 리용하고있다.

현재 여러 나라들에서의 위성개발방향과 추세를 보면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성능이 높은 극소형지구관측위성을 개발리용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2020년에 가서는 세계적으로 발사되는 위성들가운데서 약 70%가 극소형지구관측위성일것이라고 한다.

국가우주개발국 김 정 오

조국수호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양덕군 은하고급중학교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수호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곳 일군들과 교육자들은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길에서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영웅전사들의 고귀한 수령결사옹위의 제1선에 서서 사회주의 내 조국을 굳건히 수호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있다.

학교학생들속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미풍도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으로 학생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이들은 여러 기회를 통하여 영웅전사들이 세운 위훈과 그들의 투쟁정신에 대하여 실감있게 해설선전함으로써 영웅들의 넋이 학생들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고동치게 하고있다.

또한 조국보위초소에서 보내온 편지를 통한 교양사업과 웅변모임, 복수결의모임 등도 실효성있게 진행하고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조국의 영예를 떨쳐갈 축구선수들로 준비해간다. —판모봉체육단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핵포기》궤변은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수 없다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선후차를 다시금 명백히 가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핵위협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외피를 쓰고 날조와 허위기만으로 여론을 오도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려놓고있기때문이다. 그것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문제와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인것으로 하여 더욱 그러하다.

지금 미국과 괴뢰들은 그 무슨 평화와 안정의 《걸림돌》이니 뭐니 하며 《북핵포기》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다. 특히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해 악의에 차서 헐뜯으며 국제적인 반공화국대결공조를 구걸하기에 여념이 없다. 극단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사이비전문가들과 괴뢰보수언론들도 그 무슨 《국제사회의 흐름》을 운운하며 《북핵문제해결》이니 뭐니 하고 여론을 어지럽히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떠들어대고있는 《북핵포기》나발은 그 부당성과 도발적성격으로 하여 어디에도 통할수 없다.

조선반도핵문제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며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필연적귀결이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벌써 우리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원자탄공갈을 하였으며 전후에는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였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화하는 문제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문제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내세우고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끝장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해 미국과 괴뢰들은 북침핵전쟁책동을 더욱 강화하는것으로 도전해나섰다. 이로 하여 우리는 미국이 감행하는 핵위협공갈의 피해자로 되여왔다. 애당초 남조선에 미국의 핵무기가 반입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핵문제는 생겨나지도 않았을것이다.

대결일방이 세계최악의 핵전쟁광신자인 반면에 타방이 비핵국가라면 커가는것은 핵전쟁위협뿐이다. 우리가 찾은 최종결론은 핵위협은 핵억제력으로써만 막을수 있다는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괴뢰들의 모험적인 핵전쟁책동을 제압하고 민족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였다.

북침전쟁현훈증에 걸려 미국의 핵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외세의 북침핵전쟁수레를 열성껏 끌어온 괴뢰들은 사실 그 누구의 《핵포기》에 대해 떠들체면도 없다. 미국과 괴뢰들의 끈질긴 북침핵전쟁위협과 반공화국대결정책이야말로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킨 근원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병진로선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지난 세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악랄한 북침전쟁책동속에서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굳건히 수호될수 있은것은 우리에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과 선군정치가 있었기때문이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자립적민족경제와 함께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고 선군의 기치밑에 무적필승의 군력을 더욱 억척으로 다졌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진 미제와 괴뢰들의 핵공갈과 북침전쟁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경제와 국방병진로선의 계승이며 심화발전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의 핵무장해제와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미쳐날뛰고있기에 우리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였다.

우리의 전략적선택은 천만번 정당한것이다. 강위력한 핵무력우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인민들의 행복한 삶도 있다. 력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오늘 조선반도의 현실이 웅변으로 립증해주고있다. 우리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이 줄어들었다는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평이다. 핵보유이전의 조선에 대해서도 감히 군사적공격을 하지 못했던 미국과 괴뢰들이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우리 공화국에 싸움을 건다는것은 자멸행위이며 미국은 우리에게 완전히 패했고 주도권은 우리 공화국에 있다는것이 내외여론의 주장이다. 이전 미국방성 차관보까지 《조선은 미국의 핵공격에 충분히 대처할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에 의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다 굳건해졌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그 어떤 정치적흥정물이 될수 없다. 내외의 공정한 여론도 그것을 알기에 병진로선에 찬사를 보내고있다.

미국과 괴뢰당국은 《북핵포기》를 떠들기 전에 엄연한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하며 전쟁열에 들뜬 머리를 식히고 랭정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선차는 《북핵포기》가 아니라 미국과 괴뢰들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과 대조선적대시정책, 동족대결정책의 포기이다.

내외호전광들이 그 무슨 《평화와 안정》이니 뭐니 하며 《북핵포기》를 떠들지만 그것은 침략자, 도발자로서의 흉악한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파렴치한 궤변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8월 17일부터 대규모의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시작할것이라고 공언한것도 그에 대한 명백한 립증이다. 지금 내외호전광들은 남조선미국편합무력의 《준비태세증진》에 대해 떠들고있다. 그 《준비태세》라는것이 북침핵전쟁태세라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핵문제해결을 위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면 핵시험을 림시중지할수 있다는 용의를 보여준바 있다. 그러나 내외호전광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강행으로 그 기회를 차던졌다는것은 내외에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입만 터지면 《북핵포기》를 떠들어대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망동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과 괴뢰들의 《핵포기》요구는 결국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발화점으로 삼겠다는 소리나 같다.

미국과 괴뢰들이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궤변으로 《북핵포기》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은 오산이다. 미국과 괴뢰당국이 그 누구의 《핵포기》를 떠들어댈수록 그 침략적, 도발적성격은 더욱더 드러나게 될것이다.

자위적인 핵억제력으로 미국과 괴뢰들의 무모한 도발과 침략책동에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리 효 진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부소장이 열렬히 칭송

천만년 길이 칭송할 절세위인의 불멸의 전승업적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오규상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부소장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7월 2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영웅조선의 기상을 온 누리에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금치 못해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7월 27일은 성스러운 우리 조국의 년대기에 제2의 해방의 날로 아로새겨져있다.

뜻깊은 전승절을 맞이할 때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세계 《최강》을 떠들던 미제를 타승하신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백수십년의 침략력사를 가진 미제와 맞선 치렬한 대결전이였다.

미제는 72시간안에 《전쟁을 결속지을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3일이 아니라 3년동안이나 전쟁을 치르고서도 력사상 체험해본적이 없는 대참패를 당하였다.

미국과 서방의 한다하는 《책략가》들과 악명높은 살인《장군》들이 달라붙어 품을 들여 준비한 군사작전들이 위대한 대원수님의 주체적인 군사전략과 전법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침략자들을 통쾌하게 쳐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세계전쟁사에는 이름을 날린 명장들이 많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뛰여난 군사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의 영재는 없다.

하기에 오늘도 세계 진보적인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를 20세기의 군사적기적이라고 격찬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을 탁월한 군사전략가, 천하제일명장, 희세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력사는 걸출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하며 미국은 결코 무적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었다.

특출한 군사사상과 리론,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담대한 배짱, 전사들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미제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김일성대원수님의 빛나는 전승업적은 후손만대를 두고 길이 칭송될것이다.

세기와 세대는 바뀌였지만 1950년대의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은 오늘도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우리 혁명의 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따라 승리의 7.27을 안아오고 백승을 떨쳐온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조국인민들의 힘찬 진군에 보폭을 맞추어나갈것이다.

대결을 끝장내고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남조선 울산지역의 각계층이 7월 25일 통일모임을 가지고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주장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6.15공동선언발표 15돐,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해에 울산에서 통일모임을 가지게 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은 뜻깊은 올해를 남과 북이 대결을 끝장내고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울산지역의 로동자, 예술인, 대학생, 청소년 등 615명이 대합창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6.15공동선언을 고수, 리행하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평화운동단체가 주장

조선재침을 노린 《집단적 자위권》행사 중단하라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일본에서 조선반도재침략의 길로 질주하는 일본의 파렴치한 책동을 규탄하는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얼마전 일본국회청사앞에서 진행된 집회에 평통사성원들과 함께 2만 5 000여명의 일본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아베는 식민지지배 사죄하고 배상하라!》, 《조선반도재침략을 노린 일본 〈집단적자위권〉행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웨쳤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일본《자위대》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뒤받침해주는 일본의 불법적인 안전보장관련법안 강행처리를 규탄하였다.

그들은 일본정부와 언론이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대해 《안보를 위한 법》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침략의 본질을 외곡하려 하고있지만 이것은 명백히 전쟁법안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평통사성원들은 일본의 평화활동가들을 만나 위험천만한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대중적운동을 벌려나가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 *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7월 31일 괴뢰국방부앞에서 159차 평화군축집회를 가지였다.

단체는 최근 일본《자위대》의 《집단적자위권》행사와 조선반도재침을 노린 모의를 미국과 일본, 남조선당국이 벌리고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고 까밝혔다.

일본이 안전보장관련법안을 강행처리하여 재침의 합법적인 길을 열려고 하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민중도 모르게 일본과 군사협력을 위한 각급 실무론의들을 추진하고있는 사실도 폭로되고있다고 단체는 비난하였다.

단체는 일본의 재침책동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하면서 국방부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와 관련한 일체의 협의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대결과 군비경쟁을 초래하는 《싸드》배치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국방부가 미국의 강요를 단호히 거부할것을 단체는 요구하였다. 단체는 불법적인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탄저균사건을 조사하고 그 무슨 《결과》라는것을 발표하였다고 단죄하였다.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이 참가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탄저균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것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색정당》의 변할수 없는 본성

남조선에서 《새누리당》이 《성누리당》으로 불리워온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추한 몰골이 이번에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났다. 《색정당》패거리들의 고질적인 악습이 또 발작한것이다.

얼마전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이란자가 4 0대의 한 녀성을 대구시의 어느 한 호텔로 불러내여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각계의 비난과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괴뢰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의하면 심학봉은 사건발생전날부터 이미전에 알고있던 그 녀성을 호텔로 계속 호출하였다. 그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다음날에도 전화를 통해 자기가 있는 호텔로 올것을 거듭 강요하였다. 끈질기게 달라붙는 《새누리당》 의원의 위협에 못이겨 그 녀성은 하는수없이 호텔로 찾아가게 되였으며 끝끝내 봉변을 당하고야말았던것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신문들은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을 람용한 성폭행》, 《너도나도 성희롱, 성추행에 성폭행을 즐기는 〈성범죄당〉》, 《〈성추문당〉사고 일지에 또 한페지 기록》이라고 전하며 《새누리당》을 규탄, 조소하였다.

사건이 터지자 당장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야 할 처지인 심학봉은 뻔뻔스럽게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느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느니 하면서 자기의 범죄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녀성을 호출하던 전화기의 통화기록과 호텔에서의 자기 행동을 기록한 감시카메라의 내용은 부인할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지러운 성추행사건의 내막이 말짱 드러나게 되자 심학봉은 더는 변명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인채 《새누리당》에서 탈당하는 망신스러운 추태를 보이였다.

분노한 민심은 심학봉의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으로 말하면 친박계의 핵심으로서 《유신》독재자를 《아버지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딸이 《대통령》이 되였다고 닭똥같은 눈물을 줴짜며 노죽을 부리던자이다. 더우기 성폭행사건당일에 이자는 《새누리당》의 경상북도지구당 릉라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썼다고 한다.

정치인의 도덕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주관하게 된자가 앞장서서 성폭행을 일삼고있으니 《새누리당》패거리들의 부패타락과 패륜패덕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가히 짐작할수 있지 않는가. 그야말로 인간의 륜리에 대한 모독이 아닐수 없다.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사건에 격분을 표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은 인권을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규탄하면서 심학봉의 의원직 사퇴와 《새누리당》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입이 열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것이 《새누리당》것들의 처지이다. 그런데도 이자들이 《개인명예훼손》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 족속을 비호두둔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인가.

이전에도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의원인 최연희가 먹자판을 벌려놓고 녀성기자를 성추행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고 강용석 역시 녀대학생을 성희롱하여 의원직에서 물러나고말았다. 이외에도 수없이 벌어진 성추행사건들은 이 반역당에 《성나라당》, 《색정당》이라는 오명을 찍어주었다. 현 괴뢰집권자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행각에 나섰다가 윤창중의 성추행사건으로 국제적망신을 당한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디 그뿐인가.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도 성추행경력에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윤창중의 성추행사건이 가셔지기도 전에 김무성이 먹자판을 벌려놓고 술에 취한척 하면서 슬그머니 녀성기자에게 성추행을 하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것이다. 이런 호색한들이 집권여당이랍시고 남조선정치판을 주무르고 지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하여 걸고들고있으니 정말 낯가죽이 곰발통같은자들이 아닐수 없다.

색정무리로 불리우는 《새누리당》패거리들이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있으니 남조선에서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고 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속에 헤매이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부패무능한 반역《정권》, 패륜패덕의 무리인 《새누리당》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라 영 국

외세와 야합하여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는 괴뢰호전광들

4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미태평양공군사령부의 주관하에 미국 알라스카에서 벌어지는 《레드 플래그》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괴뢰공군의 《F-16D》전투기 6대가 이날 현지로 날아갔다.

미공군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알라스카의 군사연습지에 도착한 괴뢰공군 전투기들은 현지적응을 위한 사전훈련으로서 공중전투훈련, 지상공격훈련 등을 하게 된다고 한다.

10일부터 21일까지 감행되는 이번 공중합동군사연습에서 호전광들은 항공차단훈련, 공중엄호훈련을 비롯한 공격훈련들을 벌려놓고 정밀유도무기와 재래식폭탄까지 사용하며 전쟁화약내를 풍기려 하고있다.

특히 괴뢰공군의 《F-16D》전투기들이 처음으로 합동정밀직격탄을 실지 투하하는 훈련도 감행하려 하고있다.

동족을 어떻게 하나 군사적으로 압살해볼 야망밑에 괴뢰군부호전광들은 머나먼 미국땅에서 감행되는 전쟁연습에까지 참가하며 상전의 대조선침략정책에 적극 편승하고있다.

분별을 잃고 헤덤비는 이 불장난소동은 괴뢰당국이 곧장 늘어놓군 하는 《대화》타령에 숨겨진 본심이 무엇인가를 더욱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민족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진실한 대화분위기를 해치며 외세와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에만 매달리는 괴뢰호전광들이야말로 자주,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장본인이다.

시민단체들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

남조선의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여 투쟁을 시작한 때로부터 3 000일이 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정부》가 해군기지공사가 지연된데 대한 책임을 강정마을주민들에게 들씌우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강정마을주민 수백명이 사법처리되고 지역환경이 혹심하게 파괴된데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하는지 박근혜《정권》은 대답하라고 단죄하였다.

제주해군기지와 강정마을의 평화는 공존할수 없다고 하면서 성명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과거 침략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없는 파렴치한 일본
남조선방송이 비난

최근 남조선 《KBS》방송이 과거 침략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하였다.

방송은 일본전범기업 미쯔비시가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에서 강제로동에 시달린 미국과 영국인 지어 오스트랄리아인들에게도 용서를 구하지만 조선사람만은 례외라는 망언을 쏟아낸데 대해 폭로하였다.

조선사람은 일본의 《총동원법》에 의해 동원된것이라고 하면서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고있다고 방송은 비난하였다.

방송은 이를 통해 일본정부뿐아니라 민간기업마저 과거 침략사와 강제로동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이 추호도 없음을 재확인하게 되였다고 밝혔다.

더우기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땅》이라는 억지주장을 10여년째 계속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을 침략하여 수십년간 식민지지배를 하고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것은 뻔치도 없는 낯뜨거운 일이라고 방송은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건전하고 발전된 사회건설을 위하여

• 인디아가 인터네트를 통하여 류포되는 불순편집물에 대한 단속통제를 강화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어린이색정범죄를 비롯한 각종 불순편집물을 퍼뜨리는 857개의 웹싸이트들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사회에 건전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고 한다.

• 따쥐끼스딴에서 최근 법보호기관 성원들이 나라의 국경지역에서 4차례의 반마약작전을 벌려 5명의 범죄자들을 소탕하고 300여kg의 하쉬쉬와 여러정의 무기들을 압수하였다.

4일 이 나라 법보호기관이 밝혔다.

• 싱가포르부수상이 얼마전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생산단위들에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들을 창안하고 그들에 대한 봉사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생산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는것도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나이제리아정부가 얼마전 전국적범위에서 12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분야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보장에 깊은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이란에서 과학연구사업

철도이동식미싸일종합체의 배비와 로미관계

로씨야가 본격적인 철도현대화사업에 착수하였다.

전해진데 의하면 로씨야철도주식회사가 국방성 그리고 국방공업종합체의 유관기업들과 공동으로 철도의 나무침목들을 콩크리트침목으로 교체하는 대규모적인 계획을 진척시키고있다.

철도의 현대화,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경제발전사업이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경제적측면에만 국한된다고 볼수 없다. 중요한것은 콩크리트침목으로 교체된 레루우로 철도이동식미싸일종합체가 달릴수 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로씨야가 이전 쏘련시기 미국에 위협을 주던 철도이동식미싸일종합체를 또다시 내놓으려 하고있다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력사적으로 볼 때 이전 쏘련은 지난 세기 8 0년대에 철도이동식미싸일종합체를 생산하면서 중부와 씨비리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낡은 철길을 교체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초중량레루가 부설되고 나무침목들이 콩크리트침목들로 바뀌였으며 자갈을 다져 로반을 보강하는 작업도 진행되였다.

이 모든 사업의 근본목적은 두말할것 없이 미싸일종합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데 있었다. 일단 철길이 있는 곳이라면 렬차에 실린 미싸일종합체가 임의의 지역으로 이동하여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할수 있으므로 그 위치를 탐지하여 요격하기가 불가능하였다.

미국이 철도이동식미싸일종합체를 두려워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지난 기간 미국은 전략무기축감조약체결을 위해 로씨야와 교섭하는 과정에 이 종합체에 장비된 모든 미싸일들을 해체하고 종합체는 페기할것을 지꿎게 주장해나섰다.

쏘련의 해체를 전후하여 조성된 복잡한 정세하에서 로씨야에서는 거의 모든 철도이동식미싸일종합체들이 페기되거나 고정배치지들에 머물러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로씨야는 미국의 면전에서 철도이동식미싸일종합체를 다시 등장시키려 하고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던 주패장을 꺼내들려 하는것이다.

로씨야가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것은 현시기 이 나라가 처한 대외적환경에 따른것이라고 할수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사태를 계기로 로미관계는 랭전종식이래 가장 첨예한 대치상태에 놓여있다.

미국은 유럽미싸일방위체계의 구축을 강행하는 등 로씨야에 대한 군사적압박공세를 강화하고있다.

로씨야의 국경연선에 수많은 함선과 폭격기들을 배치하여놓은데 이어 동유럽과 발뜨해연안나라들에 땅크와 보병전투차, 각종 포 등 중무기들을 전진배비하려 하고있다. 미국주도의 나토는 로씨야의 국경가까이에서 군사연습을 계속하고있다.

지난 7월 미국무성 관계자는 유럽미싸일방위체계의 필요성을 운운하면서 방위체계구축을 계속할 기도를 드러냈다.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의 군사적움직임은 로씨야가 그어놓은 붉은 선을 훨씬 넘어서고도 남은 상태에 있다.

로씨야가 자국의 전략적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고있는데 대해 관망하고있을수는 없는것이다.

로씨야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미국주도하에 강행추진되고있는 유럽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대해 경종을 울려왔다.

지난해에 로씨야는 나토가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계속하는 경우 자국철도를 통해 전국적범위에서 이동하게 될 《핵렬차》, 이동식미싸일종합체를 출현시킬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얼마전에는 로씨야대통령 뿌찐이 모스크바가 자체방위를 위해서뿐아니라 전세계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전개에 대응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전략적안전은 무력균형에 의해 담보된다고 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응조치를 취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뿌찐의 발언을 포함한 로씨야의 경고가 철도이동식미싸일종합체의 배비와 같은 군사적강경대응조치들을 념두에 둔것이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전해진데 의하면 이 미싸일종합체는 2 0 1 9년경에 전투근무에 진입하게 된다. 1개의 철도이동식미싸일종합체에는 6기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이 장비될것으로 예견되는데 이것은 1개의 미싸일련대와 맞먹는다고 한다.

로씨야는 또한 항공부대의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크림지역에 《T y－2 2M3》초음속폭격기를 배비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앞으로 임의의 목표물을 타격할수 있는 미싸일들과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들의 대수를 증가하는 등 로씨야의 군사력강화가 보다 적극화될것으로 평가되고있다.

로씨야는 자국군대가 올해말까지 기술적으로 가장 완성된 미싸일방위체계도 극복할수 있는 4 0여기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을 핵무력에 추가로 배비하며 2 0 2 0년에 가서 로씨야군이 장비하게 될 무기의 7 0%이상이 현대적인것으로 될것이라는데 대해 숨기지 않고있다.

모든 사실로 미루어보아 로씨야가 미국과의 군사적대결에서 마지막까지 고압자세를 허물려 하지 않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오늘날 로미관계의 주도권이 과연 어느쪽에 있는가는 불보듯 명백하다.

《누구에게 계속 양보하거나 굽어들며 그 누구와 쑥덕거린다고 해서 정세가 호전되지는 않는다. 정세는 우리가 보다 강해지는 경우에만 호전될것이다.》

이것이 로씨야의 립장이다.

미국이 이러한 로씨야를 굴복시켜보겠다는것이야말로 어리석은 힘의 과신에 기초한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 철 혁

심각한 기아위기

남부수단에서 계속되는 무장분쟁의 후과로 기아위기가 악화되고있다.

최근 유엔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에서 450만명의 주민들이 식량부족난으로 고통을 겪고있다고 한다.

무더기비피해 확대

웰남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3일현재 사망자수가 22명으로 늘어나고 2 500㏊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으며 1만 1 500여마리의 집짐승이 죽었다.

피해를 가장 혹심하게 입은 꽝 닌주에서는 7일동안에 비내림량이 800㎜에 달하였으며 이것은 40년래 최고를 기록하였다.

앞으로 며칠동안 이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지속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현지에서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녀성실업문제

에스빠냐에서 7월에 녀성실업자수가 221만 2 130여명에 달하였다.

4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51124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